



제4편

문화예술과 축제

제1장 문화정책의 전개와 과제

제2장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활동

제3장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지역축제

제4장 문화예술행사의 특징과 현황

제1장 문화정책의 전개와 과제

이원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와 군포

1) 문화정책의 개념

정책은 정부나 단체 또는 개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당이 표명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및 개인의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하거나 실현시키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책무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이와 같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영역 중에서 주민들의 생계나 육체적 건강유지와 직결된 생존이나 보건위생의 문제 등과 같은 사회복지행정을 제외하고, 모든 시민의 보다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행위는 특별히 문화행정으로 분류된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생활권 곳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도시 디자인을 쾌적하고 조화롭게 조성하는 일도 광의의

문화행정 영역에 포함된다. 아울러 넓은 의미에서 체육행정과 관광행정 역시 문화행정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는 단순히 직제상 문화행정의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는 건전한 정신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지역의 전통예술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한 지역 공동체의 축제를 개최하여 외부 방문자들에게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산업 역시 학술적 분류체계에서는 문화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편람과 정책 목표 등을 살펴보면, 문화정책은 국민들의 문화복지 증진, 예술창작 기반 조성, 문화적 정체성 확립 등을 추구하면서 문화적 경쟁력과 나아가 전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의 개념이 종래의 고급 예술 혹은 정신적 교양이라는 협의의 개념을 벗어나 대중문화나 문화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문화정책은 소수의 국민만이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광의의 문화정책 분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문화를 ‘인간의 삶의 양식’으로 이해하는 문화인류학적 개념에서 보지 않고 문화를 의식주 등 생활문화와 신념, 종교, 예술, 미디어 등 행정적 의미의 개념에서 파악하더라도, 문화행정의 영역 중에서 예술정책이라는 개념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분장에서는 예술정책을 문화정책의 일부로 간주하거나 동일시한다. 즉, 의식주 등 생활문화, 정신문화와 민족문화, 공간문화, 여가문화, 미디어와 정보문화 등 모든 문화정책의 영역이 예술 정책과 결부되어 나타나거나 심지어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불우 청소년, 재소자,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문화권 신장을 위한 예술진흥 정책이나 이러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등)의 편의시설 개선 등도 문화정책의 범주에 포함된다.

결국 이처럼 확장된 개념에서 문화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며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정책은 다양한 일상 속에서 문화 활동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예술 진흥이나 문화향수기회 확대, 문화시설 확충 등의 측면에서 추진하였던 정책적 성과는 이제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가 협의의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정책은 결국 광의의 문화정책인 문화복지정책의 하위 영역인 셈이다.

2) 정부와 군포시의 문화정책 비교

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정치철학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시기별로 그 정부의 이념이나 정책의 방향이 반영된다. 당연히 정책의 주요 목표나 추진 방안, 사업의 비중도 달라질 수 있다. 군포시의 문화정책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순응하여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한계점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종속적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정책적 기조와 사업은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추진 성과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군포시의 문화정책 추진실태를 비교해 보면, 먼저 전두환·노태우 정부 기간에는 지역문화 진흥, 민족문화 활성화 등의 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 군포시도 산본 신도시 개발지구 내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역문화행사인 옷내골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초보적인 수준에서 소극적인 문화정책을 펼쳤다.

이에 비해 1993년 집권한 문민정부는 '문화복지'를 구체적인 정책의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문화의집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 건설 사업의 완료 등에 힘입어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시립도서관과 군포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부(이하 '군포예총') 설립, 시민체육광장 건립, 군포시청소년상담실 운영, 군포소식지 창간 등이 이루어졌고, 군포시민회관(현 군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도 이 시기에 진행되었다. 또한 민선1기 자치단체장이 재임하며 『군포 비전 2001』을 수립하였다.

1998년 집권한 국민의정부는 창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문화 정책을 수립하였다. 창조적 예술 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산업의 획기적 발전 체계 구축, 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문



군포예총 창립 기념공연(1996)

〈표 1〉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변화

시기	특징	추진방향
1970년대	종합적인 문화정책 태동기, 문화예술 기반 조성기	• 전통문화 계승 -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 - 문화 중흥 달성
전두환 정부 (1980.8~1988.2.)	문화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설정	• 문화적 주체성 확립 - 전통문화의 발전 우선순위 상정 -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 - 문화매체 산업의 육성 • '삶의 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문화적 권리 주장 - 헌법에 문화를 삽입함으로써 외형적 측면에서는 문화국가 구성원리 표방 - 문자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복지' 언급 - 지역문화시설의 건립과 격차 해소, 이를 통한 지역문화의 진흥 노력
노태우 정부 (1988.2~1993.2.)	문화복지국가의 비전으로 서 장기 문화정책 추진	• 문화발전 차원의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강조 • 1989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발표 - 문화복지 지향을 위한 경제발전 병행의 문화발전 -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 통계조사 수행 - 문화 향수 신장에 대한 관심 시작
문민정부 (1993.2~1998.2.)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문화정책 추진	• 민족정기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문화복지'를 구체적인 정책의제로 설정 - 문화정책의 가치로 문화복지 강조 : 인간적인 삶의 충실화, 일상적인 삶의 활성화 - 문화를 통한 감수성·창의성 제고 -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1996년 문화복지기획단 설립, 문화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문화복지의 중점정책으로 문화의집 건립
국민의정부 (1998.2~2003.2.)	창의적 복지국가 지향의 새문화 정책 추진	• 문화기반시설 확충 - 창조적 예술활동 여건 조성 - 문화산업의 획기적 발전체제 구축 -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문화대국 및 지식강국 건설 • 창의적 문화복지 국가 지향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발전 원동력인 창의성 강조 정책 -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역할 확대 - 문화자원봉사 육성 및 문화예술교육 강조
참여정부 (2003.2~2008.2.)	21세기 문화대국 지향의 문화정책 추진	• 보편적 문화향수권 보장 -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 - 자유롭고 활기찬 문화예술인 - 세계 수준의 문화산업 • 취약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증대를 문화복지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 - 문화복지 대상의 범위 명확화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이주민, 재소자, 지역 등 취약계층 - 문화복지 정책의 목적 이동 : 기존의 국민 모두의 감수성 증진과 창의력 제고에서 향수 기회의 확대로 이동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문화정책백서』; 김세훈 · 조현성, 2008,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화대국 건설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건립 목표 설정,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역할 확대, 문화 자원봉사 육성, 문화예술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군포시는 군포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건립,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문화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문

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전통 문화의 보존과 지역 문화 발굴 및 특성화를 통한 문화유산 계승 발전 사업도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민선2기 자치단체장이 재임하며 『VISION 2005 군포』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년 집권한 참여정부는 21세기 문화대국 지향의 문화정책을 수립하였는데, 보편적 문화향수권을 보장하고 선진국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며 세계 수준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취약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을 문화복지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분배, 균형발전 시책사업을 시도하였다. 군포시에서는 문화기반시설 건립 위주의 정책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문화 진흥 사업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와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러한 성과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군포시를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VISION 2020』을 수립하여 문화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설정하였는데, 국민의정부의 국민 문화복지 증진과 창의력 제고라는 방향에서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 문화정책의 시기별 전개 양상

공공행정에서 시기별 구분은 제도적 장치와 연동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군포시의 문화예술정책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시기와 일치시켜 살펴거나 아니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더불어 논하는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군포시의 경우에 기본적인 자치행정의 단위인 시로 승격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민선 1기·2기·3기·4기 등에 한정된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추진된 문화정책의 내용이나 문화발전의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시기와 문화정책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문화정책 형성기’, ‘문화예술도시화 추진기’, ‘문화예술 발전기’로 나누어 시기별 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고,¹⁾ 편의상 체육이나 교육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해서 그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1) 각 시기별 문화정책의 현황 및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군포시가 발간한 『시정백서』들을 참조하였다.

1) 독자적인 문화정책 형성기(1989~1994)

군포 지역은 1979년 5월에 읍으로 승격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조금 못 된 1989년 1월에 시로 승격하였다. 이로써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독자적 문화정책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추진 시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책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시 승격 초기인 만큼, 애항심 고취와 지역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즉, 이 시기 문화정책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공급의 양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역 문화행사 개최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의 다른 기초단체나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군포시는 시흥군 군포읍이라는 하급 행정단위에서 시라는 기초자치단체 행정단위로 승격한 첫 해인 1989년 10월에 시민의날²⁾ 기념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관내 소재 문화재를 조사하여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기 시작하였고, 산본 신도시 개발에 따라 1990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문화유산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전담 기관의 역할을 기



제1회 동별민속예술경연대회(심태섭 소장)

2) 군포시의 시민의날은 10월 7일이며, 이는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항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1989년 6월 7일에 「군포시시민의날조례」(조례 제126호)로 제정되었다.

대하며 1992년 3월에 군포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옷내골문화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부터는 동별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위 프로그램의 하나로 개최하였다. 군포문화원은 1993년 11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994년 5월 20일에 정식 개원하였다.

또한 이 시기 군포시의 문화행정은 전통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문화 창조력의 바탕이며 미래에 대비한 지식정보 문화의 핵심 기반인 공공도서관 설립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93년 12월 29일에는 군포도서관(현 당동도서관)이 개관하였고, 1994년 7월에는 산본도서관이 개관하였다.

한편, 1991년에는 「지방 문화 발전 5개년 중기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³⁾ 그 내용은 문화공간 및 시설 건립을 골자로 하는데, ‘시민회관(문예회관) 건립’, ‘도서관 건립’, ‘문화원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회관은 산본 신도시 내에 195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1995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었고, 도서관은 산본 신도시 내에 40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1996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문화원은 시민회관 내에 1995년 개원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2) 문화예술도시화 추진기(1995~2000)

군포시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1990년대 중후반은 문화예술도시화 추진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문화정책은 이전 시기와 달리 좀 더 구체화된다. 이는 1997년 수립된 『군포 비전 2001』의 문화예술 관련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⁴⁾ 이 계획에서는 1997~2001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문화예술 진흥의 목표 및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시민회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
- 문화원과 군포예총을 중심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개발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적극적으로 부응

이를 위해서 ‘문화공간 확충’,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나누어 <표 2>와 같은 사업들을 계획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96억 9,200만 원(국비 22억 9,500만 원, 도비 127억 4,700만 원, 시비 44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산되었다. 이 시기에는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과 군포를 대외에 널리 선양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조성과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

3) 군포시, 1991, 「시 문화발전 중기 계획」(1991년 8월 10일).

4) 군포시, 1997, 「군포 비전 2001」, 349~357쪽.

〈표 2〉 「군포 비전 2001」의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계획

추진 사업		주요 내용
문화공간 확충	시민회관 건립	● 1998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군포2동 복합문화센터화	● 동사무소, 여성회관, 도서관, 주민집회시설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 대야동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건립
	도시자족기능 확보	● 대형유통센터 유치 ● 문화·스포츠 시설 병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단체 활동 강화	● 문화원 및 예총 : 행정 및 재정 지원 확대 ● 시립예술단 운영 :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 기타 자생단체 지원
	문화이벤트 개발	● 민간 연계 문화이벤트 발굴 및 추진 ● 전국 단위 문화행사 유치(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군포문화상 시상	● 매년 10월 : 학술, 예술, 교육, 개발, 체육 분야 각 1인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문화예술행사 정기 개최	● 시민회관 개관 후 월 1회 이상
	문화예술의 생활현장 공연	● 관내 각급 문화예술단체 활용
	문화시설 시민이용 개방	● 시민회관, 복합문화센터 ●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에 대어
	자원봉사 시민 문화예술 실기교실 운영 지원	● 시민 또는 동아리와 이들을 지도할 전문 자원봉사자를 연결하고 실기교실 운영 지원
	시민 문화예술대회 활성화	● 부문별 대회 개최 후 축제 기간에 발표·전시

출처 : 군포시, 1997, 「군포 비전 2001」, 349~357쪽.

설로 군포시민회관(현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매우 중요하다. 군포시민회관은 1991년부터 건립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여 1998년 5월 7일 개관하였다. 군포시민회관 개관으로 군포시는 전문적인 문화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들은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 외에 군포문화센터도 2000년에 개소하여 당동 일대 기존 도시권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에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주요 문화예술행사도 1999년 기준으로 17개로 늘어났고, 특히 1996년부터 지역 향토문화예술제인 태을예술제(1996년에는 시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이 기간에 15개에 이르는 전문적인 문화예술단체가 설립되었다. 그중 시립여성합창단이 1995년 1월 설립되었는데, 시립합창단은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내외에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문화예술 발전기(2001~현재)

1990년대의 지속적인 문화기반시설 확충정책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군포시는 2000년대



군포문화센터 개소식(2000)

들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문화시설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다양한 민간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2001년 수립된 『VISION 2005 군포』와 2007년 수립된 『VISION 2020』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VISION 2005 군포』는 앞서 수립된 『군포 비전 2001』의 목표와 방향은 그대로 계승하되, 사업의 내용은 좀 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되었다. 특히 시설 건립 및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운영 활성화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이전 시기와 차별화된다.

2007년 수립된 『VISION 2020』은 문화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두루 포함되어 수립되었다. 특히 시설 건립이나 확충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이 타 분야에 고루 포함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포함되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지역별 복합문화체험시설 거점화’, ‘지역 간 문화시설 이용 협약프로그램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 군포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이라는 문화복지적 관점에서 문화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시정 목표에서도 나타나듯이 풍요로운 삶을 선도하는 문화도시를 목표로 하는 군포시는 시민들이 문화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기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 우선 군포시민회관은 2003년 11월에 군포시문화예술회관으로

〈표 3〉 「VISION 2005 군포」의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계획

추진 사업		주요 내용
문화기반시설 확충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 동사무소, 문화의집, 도서관 등 설치
	생활체육시설물 확대 설치 운영	• 12개소에 체력단련시설, 간이운동장, 편의시설 등 설치
	야외 가족극장 운영	• 시청사, 중앙공원, 시민체육광장 등에서 월 2회 이상 운영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 공내동에 계절별 테마로 구성 • 방송음향시스템·조형물·캐릭터 설치, 쉼터 조성
캐릭터 비즈니스센터 건립		• 산본동에 토지신탁방식으로 추진
지역문화 이벤트 추진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개최	• 매년 5월에 20여 개 단위 행사 개최
	전국 수리음악콩쿨 개최	• 초중고생, 대학, 일반을 대상의 동요, 피아노, 성악 경연
도서관 장서 확충	도서 확충	• 2005년 19만 5천 권 목표로 추진
	간행물 확충	• 정기간행물 및 정부간행물 확충
독서진흥 및 문화육성		• 독서의달 문화행사 개최(매년 9월) • 독서교실 운영(방학 중) • 장애인 방문도서대출제 운영(연중) • 주부독서회 운영 • 미취학 아동 대상 영어동화 읽기 강좌 개설 • 이동도서관 운영
디지털도서관 구축	디지털자료실 조성	• 홈페이지 구축 및 관련 장비 설치
	디지털자료 열람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및 민간 구축 DB 연계
시민회관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 대관프로그램 운영 • 우수 기획공연프로그램 운영 • 예술단체와 공연프로그램 공동제작 • 공연프로그램 브랜드화 추진
	시설 활성화	• 시설이용 활성화 •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회관 운영 • 이용자 편의 위주의 공연장 운영 •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출처 : 군포시, 2001, 「VISION 2005 군포」, 244~254쪽.

〈표 4〉 「VISION 2020」의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계획

추진 사업		주요 내용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군포문화예술종합지원센터 설치	• 기존 시설 활용 -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기획과 관리 - 축제 연구개발 - 각종 기자재 보관 - 지역예술인의 연습 및 상설 전시
	문화·역사마을 조성	• 폐가 활용 문화예술인촌 및 테마관광지 조성 • 전통문화공연 및 전통가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간 문화시설이용 협약프로그램 운영	자매도시 교류 및 문화체험	• 자매도시의 특산물 판매 및 전통문화행사 시행
	군포시 축제브랜드 개발	• 축제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공공 공연장 활용	• 소규모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한여름 쿨페스티벌, 여름야외영화제 개최 •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원 •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출처 : 군포시, 2007, 「VISION 2020」, 256~258쪽.

명칭을 변경하였다. 군포시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웰빙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 사회의 활용도 증대를 위하여 대관사업을 확대하였다.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는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종국악관현악단, 군포예총, 시립합창단이 상주하고 있다.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은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서 선진 관람문화의 정착과 지역사회 문화복지 달성의 거점 역할을 하며 군포시 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전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향토문화 예술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2002년부터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연간 10여 회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는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주로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독서 진흥 사업을 위하여 대야문화센터 내에 2002년 12월에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2004년 10월에 누리천문대를 개관하였다. 또한 2006년 5월에 산본2동에 어린이도서관을, 2008년 4월에 수리동에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청소년과 취약 계층 및 시민을 위한 문화 나눔과 지식정보 제공의 인프라인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과 보조를 통한 문화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군포시는 꿈이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고 함께하는 문화복지를 만들며, 인간 중심의 푸른 환경을 조성하여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도서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포시중앙도서관 개관식(2008)

한편,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0년 4월에 동래 정씨 동래군파 종택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5호로 지정하는 등, 2000년에서 2003년에 걸쳐서 전통종가 원형 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후로 안양군파 묘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산신제에 대한 지원 등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문화행정을 펼쳐 왔다. 조상의 얼이 서린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복원하여 후손에게 전승하는 일은 장차 지역 주민들에게 군포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문화의 정체성도 확보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따라 2007년에는 전통 종가의 원형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동래 정씨 동래군파 사당을 보수 복원하였다.

2008년 이전 군포시가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를 주축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보조를 통한 사회복지를 지향했다면, 2008년 이후의 군포시는 지역 문화행사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지향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기관들을 통해 군포 시민의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대를 아우르는 잠재적인 문화 향유자를 배양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며, 문화 저변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포시의 문화적 수준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1) 문화향수실태조사의 시사점

2008년 7월에 실시된 ‘군포시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⁵⁾ ‘군포시의 문화·체육행사·오락 관련시설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24%만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자치단체의 노력에 비해 주민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도에 비해서도 1.5%포인트 감소한 비율이다. 권역별로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산본권역은 ‘만족’이라는 응답이 2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당정 및 대야권역은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49%로 타 권역 거주자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2.95점으로 나타나 통계치 표준편차의 기준점인 3.0에 조금 못 미쳤다. 즉,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중립적인 응답률을 제외하더라도 만족보다는 불만족 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문화예술 서비스 만족도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차이가 일부 나타난 점도 향후 시정에서 배

5) 군포시, 2008, 『제2회 군포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려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반면,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참여 경험여부'와 '만족도'라는 두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지역문화예술행사에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9.1%, '없다'는 응답은 45.6%로 나타나, 서울이나 인천 등 대도시권에 비해 공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7년도에 비해서도 3.5% 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참여자 분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주거권역별로는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당정 및 대야권역 거주자가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드웨어 구축과 문화행사 참여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측면도 향후 군포시의 문화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25점으로 나타나는데, 통상 3.0점 전후에서 나타나는 통계조사의 표준편차를 고려하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불만족 응답자의 요인별 응답 내용을 분석하면, '행사 내용이 다양하지 못해서'가 44.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17.7%, '행사시설이나 준비가 부족해서' 13.8%,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11.9%, '교통이 불편해서' 7.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는 인프라와 편의시설보다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만족을 지적하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응답경향으로 미루어 앞서 '하드웨어 구축과 문화행사 참여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향'은 타당성 있는 분석임을 재확인시켜 준다.

지역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은 주로 '홍보전단 및 포스터'를 통해 얻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신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다는 응답률이 18.6%에 이르러 지역신문 의존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친지나 동료, 이웃' 16.0%, '시청홈페이지' 7.6%, '시정소식지' 6.1%,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 5.9%, 벼룩시장 등 '무료일간지' 3.3%, '중앙신문' 1% 순이었다. 직접적인 홍보물이나 주위의 권유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정보전달 체계나 수단의 다양성 확보, 특히 시청이나 문화예술기관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성화 전략이 시급함을 일깨워 준다. 권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여전히 도시화의 진척도가 빠른 산본권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당정·대야권역이 상반되고, 당동 권역은 평균치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관련 정책 추진에서 권역별로 세심한 배려와 차별화된 정책 수단의 투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군포시민들은 향후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시가 우선 해야 할 사업으로 '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1순위로 꼽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인 통계 조사의 경향과 일치한다. 이 항목의 조사에서 응답자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군포시의 대표적인 문화정보 제공 웹사이트(좌-군포문화관광, 우-군포시문화예술회관)

우선 연령별 응답률 차이를 살펴보면, 10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 가장 확연하다. 15세 이상 19세까지 응답자는 대규모 축제 활성화가 가장 큰 과제라고 응답(31%)하였고, 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그 다음 과제로 응답(27.5%)하여, 다른 세대의 응답률이 30% 중반에서 40% 후반에 이르는 응답집중률(36.6~47.3%)을 보인 경향과 뚜렷이 대비된다. 다른 세대에서는 문화예술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에 이어 대규모 축제 활성화(19.7~27%)와 소규모 축제 활성화(19.4~24.2%)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 항목 조사는 조사 지표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서 2위와 3위의 응답자가 교차되는 이 두 지표항목은 유사한 내용의 지문이므로 이 두 항목은 하나의 지표로 묶어 해석해야 정책적인 시사점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 응답률에서도 다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시가지 중심권인 당동권역과 산본권역은 유사한 응답 경향을 나타내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당정·대야권역 주민들은 대규모 축제보다는 소규모 축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나 개최장소 등의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동권역이나 산본권역에서 대규모 문화예술행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되는 데 대해 당정·대야권역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한편, 군포문화원은 200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와 집단 심층토의조사(FGI)를 실시한 바 있다.⁶⁾ 이 조사와 5년의 시차를 둔 2008년 조사의 결과를 비교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살펴보면, 군포시민들은 2003년보다 2008년 현재 군포시의 문화예술정책이 비교적 활성화되고 보완되었다고 체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는 향후 군포시 거주 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였고, 군포시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68.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동거

6) 군포문화원, 2003, 『군포시 문화예술 시정평가 및 수요조사』.

로 직장이 근처에 있거나 기업 또는 사업하기가 좋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여가 활동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평일의 경우에 14.7%, 주말·휴일의 경우에 17.3%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국민여가실태조사’에 나타난 국가 전체 평균 12.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⁷⁾ 이는 군포시의 문화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활동의 장애 요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문화활동에 대한 의지는 크지만, 문화에 대한 지출 비용에는 심적인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시민들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군포시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은 좋은 공연이 있으면 비싼 비용을 들여서라도 볼 수 있다고 응답하여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의 문화예술이 질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고정관념을 불식하지 못하였고, 시민들은 그 대안으로 서울에서 그들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시민들은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라도 막연히 즐기는 차원이 아닌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 배우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강좌와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의 확대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주부들의 경우에는 관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알고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있었지만, 청소년이나 30대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문화행사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였다. 전업 주부층이 아닌 경우, 지역 내 정보 습득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시 홍보 부족이 중요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질문 결과, 군포시는 도시 규모도 작고 문화수준도 서울에 비하여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관내에서 이슈가 될 만한 문화예술행사는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때문에 각 연령별로 일치하는 문화예술행사의 공통된 생각을 끌어내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당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군포시민들은 보다 적극적이며 눈에 보이는 문화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적 문화 편중, 문화 예산의 부족, 적극적이지 못한 홍보, 참여 유도를 전혀 못하고 있는 문화행사의 현실을 지적하며, 군포시민들의 문화체감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지만, 앞서 분석한 2008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문화정책이나 문화사업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만족도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배경에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문화예산의 확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공급 확대 등이 가져온 바람직한 결과로 분석된다.

2) 문화정책의 나아갈 방향

군포시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는 수도권 신생도시의 하나로, 2009년에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시 승격 이후 다양한 문화기반시설 구축과 문화예술 진흥 활동 등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만족도 역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다문화와 세대를 아울러 잠재적인 문화향유자를 배양하고,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한 공공성 확대를 바라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변화와 더불어 문화예술정책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군포시는 지역문화활동의 활성화와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도서관, 여성회관 같은 기관이 생겨나면서 문화복지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확충과 개선, 다양화는 앞으로도 여전히 필요한 과제이다. 아직은 개별 기관이 고유한 설립 목적에 따라 소극적인 문화복지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기관 혹은 시설 간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총량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과 문화기관이 있지만, 아직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어린이,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크고 작은, 다양한 주제와 특성을 가진 문화공간의 확충, 예를 들어 복합문화공간과 놀이를 겸한 테마전시공간, 체험관의 조성도 필요하다. 다변화, 다양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문화복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포시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타 지역과 문화적 차별성 확보 및 이미지 홍보가 미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센터, 시립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예술활동의 독창성 개발과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축제 및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있음에도 홍보 미비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부족으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홍보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시설에 대한 홍보와 시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교육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이를 통한 운영 개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정책의 범위를 좀 더 폭넓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성도 제기된다. 도시의 문화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환경 개선 사업이 예시될 수 있다. 현재 군포시가 추

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도시상징물 조성 사업, 캐릭터 디자인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미지를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이미지와 조성된 문화환경을 지역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이벤트 개최, 문화상품 개발, 도시 자체의 관광 상품화 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문화재정에 대한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며, 매년 주기적으로 제반 문화환경과 실상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정책을 단계별로 높여야 할 것이다.

여 백

제2장 문화예술계의 현황과 활동

최남희 | 수리시낭송회 회장

1. 지역 문화예술의 현황

1989년 1월, 시흥군 군포읍에서 시로 승격할 당시만 하더라도 군포시는 신생도시로서 문화예술 기반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문화 불모지 상태였다. 산본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외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로소 문화예술활동의 기반이 놓이기 시작하였다. 수도권에 인접한 신도시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중앙예술계에서 활동하던 예술인들이 차츰 군포시로 이주하였고, 그들을 중심으로 장르별 전문예술단체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관련 단체로는 군포문화원이 1993년에 가장 먼저 창립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군포지부(이하 ‘군포예총’)가 1996년에 창립하였다. 이 두 단체는 명실공히 군포시 문화예술계를 주도하는 양대 산맥으로서 문화원은 전통문화의 유지·보급·계승, 예총은 전문예술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의 문화예술활동은 전문적인 공연시설이나 부대시설의 미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례로 1995년부터 시작된 전국수리음악콩쿠르의 경우에 시청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또한 무용이나 연극 등 공연예술의 경우에도 공연장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나 복지회관의 강당 등을 빌려서 공연하고, 그나마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다.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폭제가 된 시민회관(현 문화예술회관)

1998년 군포시민회관(현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의 개관으로 군포시의 문화예술은 한 단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장, 전시실과 더불어 오케스트라, 합창, 무용 연습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시민회관은 당시로서는 화제가 될 정도로 큰 규모의 전문 공연시설이었다. 이로써 군포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셈이다.

한편, 현재는 전문적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외에도 아마추어 동아리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 생활의 확대로 일반시민들의 문화수용욕구 또한 높아지면서 전문인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문화예술을 직접 배우고 익히려는 시도들이 늘어났다. 평생교육개념의 확대도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군포시여성회관, 군포문화센터,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등이 차례로 개관하면서 각종 교양강좌 및 문화예술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다투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수강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문화예술 관련 강좌를 수강하며 기능을 익힐 수 있게 되었고, 강좌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각종 동아리단체도 생겨나 정기발표회나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그간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그중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문예술가의 길을 걷고 전문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군포시의 문화예술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처럼 전문예술과 공연 분야를 담당하는 군포예총과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를 주로 담당하는 군포문화원, 그리고 동아리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주요 단체별 문화예술활동

1) 군포문화원

(1) 연혁

군포문화원은 1993년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하고자 지역 인사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초대 정문조 원장에 이어 2대 서정선 원장, 3대 신현석 원장과 4대 송요태 원장을 거쳐 현재 5대 송운석 원장이 재임 중이다. 조직은 원장 1인과 부원장 2인,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실은 창립 초기에는 군포1동사무소에 위치하였다가 군포시민회관을 거쳐 현재는 당동 소재 군포문화센터 5층에 자리하고 있다. 2008년 군포문화원사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2009년 당정동 969-2번지에 부지를 마련하여 착공식을 거행하였고 2010년 완공될 예정이다.

(2) 주요 활동

군포문화원이 초창기에 주관한 행사로 '옷내골문화제'가 있다. 이 행사는 문화원이 정식으로 창립하기 이전인 1992년에 시작되었다.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꽃꽂이·사진·서예·수석 전시회와 시민노래자랑, 백일장 등 예술행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는 예술 장르별 활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이었으므로 모든 문화예술 행사를 문화원이 총괄하여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휘호대회, 동별 민속경연대회, 청소년 유적답사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군포문화원의 '성년례'

2000년대로 들어서며 군포문화원의 활동은 더욱 다변화되었고, 전통문화 보존과 발굴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1년부터 성년례를 개최하였다. 2002년에는 전통 뿌리 찾기의 일환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자료 조사 결과물인 『군포금석문대관』을 발간하였고, 지역에서 전승되는 산신제 조사 사업 등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군포시 문화예술 시정평가 및 수요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답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군포8경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시민 공모를 통해 군포8경을 제정하였는데, 이듬해인 2004년에 이를 소개하는 책자와 관광안내도를 발간하였다.

2004년에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인 둔대농악 지원과 고증사업을 추진하여 한국국악협회 군포지부(이하 ‘군포국악협회’)의 문화예술단 ‘누리’와 ‘둔대농악보존회’ 회원들이 둔대농악의 진행절차·복식·가락 등을 재현하고 채록함으로써 보존 및 계승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군포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유교 관련 시설인 ‘삼성사’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지역에서 전하는 옛이야기를 채록한 책자인 『군포시 전설·설화·민담 조사』를 발간한 것도 이해에 추진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2005년에는 군포8경 알리기 행사의 일환으로 ‘군포8경 그림 및 한시 공모전’을 시행하였으며, 옛 사진들을 수집하여 『군포 옛모습 사진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속달동 덕고개마을의 전래풍습을 보존하기 위한 ‘덕고개 당숲제’에 대한 지원사업도 벌이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군포8경 표지석 설치’ 사업의 첫 번째 순서로, 서예가인 이윤주 군포문화원 부원장의 휘호로 제1경인 태을봉 정상에 표지석을 설치하였다. 또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10호로 지정된 방짜유기장 김문의 장인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했다.

2007년의 특기할 만한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군포설화 특강’을 들 수 있다. 실버문화학교를 개설하고, 2004년 조사된 군포설화를 바탕으로 관내 노인들에게 문화예술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는 지역전통문화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군포문화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해설사 양성교육도 이해부터 시작되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군포문화원은 다른 지역 문화원과 달리 그간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2008년에는 문화원사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원사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의 ‘찾아가는 문화교육 아르크’를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군포설화를 바탕으로 많은 사업들을 펼쳤다. 군포설화를 다룬 단편영화 ‘감투봉 명당싸움’을 제작하였는데, 이 영화에는 실버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직접 출연하였다. 또한 당동문화센터 만화동아리가 그린 설화영어만화책 발간, 설화를 주제로 한 청소년 영어연극 발표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3) 주요 사업

2008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군포문화원 및 협력단체의 연간 정기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1〉 군포문화원 및 협력단체의 연간 정기사업

(2008년 현재)

유형	시행 사업
공모	군포사랑 사생대회, 태을서에 · 문인화대전
답사	청소년 문화체험답사, 시민문화유적답사, 문화지인 유적답사
산신제	괴곡, 수리산, 도당제, 덕고개, 삼성사, 용호 산신제, 우물정제
전시	군포시 꽃예술연합회전, 군포사진인초대전, 시민의날 기념미술전
교육	전통문화특강, 둔대농악전수, 군포문화해설사 양성, 군포문화아카데미
축제	군포당숲제, 여름야외영화제, 성년례
기획사업	군포설화관련사업(군포설화특강, 설화마당극단 구성 및 교육, 설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영화, 영어만화책 발간, 청소년 설화영어연극 사업 등)
군포8경 관련 사업	군포8경 수리사 표지석 설치(제2경)

(4) 협력단체

협력단체로는 군포문화사랑자원활동단, 군포설화단, 군포시꽃예술연합회, 군포시사진연구회, 둔대농악보존회, 둔대농악시민전수단, 삼성사봉찬회, 애향회(괴곡애향회, 금정향친회, 남덕골우물정제애향회, 덕고개 군옹회, 수리산산신제보존회, 용호애향회), 청소년문화자원활동단, 한소리예술단, 현대미술인협회 등이 있다.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부

(1) 연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중앙의 연합회와 그 산하의 전국 115개 지회 및 지부 등으로 이루어진 각 장르별 예술인들의 모임이다. 1996년에 군포시의 예술단체들이 뜻을 함께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부(이하 군포예총)를 결성하고 중앙예총의 인준을 받았다. 창립 당시의 회원단체는 문인·음악·무용 등 3개 협회였으며, 이후 미술·국악·연극·연예 등 4개 협회가 차례로 창립하고 합류하여 현재는 7개 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1대 박현태 회장에 이어, 2대 장석기 회장, 3대 조치영 회장과 4대 박상원 회장을 거쳐 현재 제5대 강신웅 회장이 재임 중이다. 조직은 회장 및 2인의 부회장과 7개 협회장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창립 초기에 사무실은 중심상가에 위치했다가 현재는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 자리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초창기 예술인들은 제반 문화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협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군포예총은 1996년 창립 직후 곧바로 제1회 시민예술제(이후 '태을예술제'로 개칭)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예산이나 행사장소 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로 뛰어 행사를 치러 냈다. 당시 열정적인 활동을 보이던 예술인들의 대부분은 현재 군포시 문화예술계에서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포예총의 '문화예술인 합동워크숍' 1)

군포예총의 각 회원단체는 사실상 장르별 예술활동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각 회원단체의 회원 자체가 해당 분야를 전공하거나 전문가로 공식 인정을 받은 전문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 중 일부는 중앙의 예술계에서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포시 문화예술계에서 군포예총의 가장 큰 사업은 축제 및 공연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 오던 '태을예술제'는 문화원이 주관하던 '웃내골문화제'와 통합되어 2001년부터 군포시 주최의 '수리문화예술제'로 운영되었다. 지역의 대표축제는 2001년 '수리문화예술제', 2003년 '군포시민대축제', 2007년 '군포태을제', 2009년 '수리수리마법축제' (2008년 축제 선포식 개최)로 바뀌어 개최되고 있다. 군포예총은 주무부서인 군포시청 문화체육과와 함께 축제 업무 전반을 진행해 왔다.

군포예총이 주관하는 전국수리음악콩쿠르 및 전국수리동요제는 1995년 시작되어 현재 15회가 진행된 행사로, 전국의 음악콩쿠르 중에서 상위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10회까지 군포음악협회에서 진행해 오다 2005년 11회부터 군포예총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로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가 있다. 2002년 시작되어 서울방송(SBS)의 '리얼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방송을 타기도 한 이 음악회는 각 동을 돌며 연간 10회 정도 개최되는데 2009년 현재까지 8년을 장수하며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기 시작한 '찾아가는 음악활동'의 붐에 힘입어 관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다.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여름 쿨 페스티벌'이 있다. 이 행사는 매년 여름 수리산 숲속에서 열리는 '숲속 푸른 음악회'와 중심상가에서 열리는 거리콘서트로 구

1) 군포예총(<http://www.gunpoart.or.kr>) '이미지자료실'.

성된다. 이런 행사들 덕분에 군포시는 인근 자치단체에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도시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2002년에는 시민체육광장에서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한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2003년부터 대야미의 둔대초등학교 주변의 들판으로 장소를 옮겨 2007년까지 개최되었다.

또한 군포예총은 시에서 개최하는 페스티벌 성격의 축제와 차별되는 전문 예술제의 필요성을 느껴 예술제를 부활하였는데, ‘군포예인예술제’라는 명칭으로 2003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군포예인예술제는 회원협회의 7개 분야 예술행사가 총 집결된 행사로서 백일장, 미술전시, 음악회, 무용과 연극, 국악 및 대중예술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특기할 만한 행사로는 2004년에 부대행사로 진행된 군포 알리기 책자 ‘열려라! 군포’ 발간, 환경미화원 및 소방·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웃초청음악회’, 군포시의 문화예술계를 진단하는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이 있다. 또한 군포의 옛 풍경과 현재의 달라진 모습을 조명한 사진전 ‘추억의 군포&아름다운 군포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이후로 매년 관내 문화예술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토론과 화합의 행사 ‘문화예술인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시민의날 전야행사를 비롯하여 2009년 반월호수 잔디광장에서 펼쳐진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기념음악회’ 등 군포에서 펼쳐지는 대형 공연의 기획과 진행을 주관해 오고 있다.

(3) 회원협회 및 주요 사업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한 군포예총과 회원협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2〉 군포예총과 회원협회의 주요사업

(2008년 현재)

구분	주요 사업	산하 단체
군포예총	수리수리마법축제, 시민의날 전야제,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한여름 쿨 페스티벌(숲속 푸른 음악회, 삼색콘서트), 문화예술인 합동 워크숍, 군포예인예술제	7개 회원협회(문인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군포지부
문인협회	군포시민백일장, 시화전, 시민문학 발간, 전국시화공모전, 사랑의 편지쓰기, 수리시낭송회	수리시낭송회, 수리샘문학회
음악협회	전국수리동요제, 가을밤의 음악축제, 수리합창제	클래식음악동호회
무용협회	전국무용제 참가공연, 창작무용 정기공연 ‘양대송의 춤’, 전국수리무용콩쿠르	양대송무용단, 군포청소년무용단, 김은희무용단
미술협회	수리산의 꿈전, 수리학생공모전, 대한민국 중심작가전, 아트플래그전	화인아트그룹, 군포청년작가회
국악협회	젊은우리음악축제, 가을속의 우리음악, 해밀의 색다른 여행	전통문화예술단 누리, 전통예술단 해밀, 국악실내악단 비상, 사물놀이 설악, 경기민요 소리향, 풍물동호회 두레
연극협회	전국연극제 참가작 공연, 전국창작단편뮤지컬축제, 정기공연	극단 연극마을
연예협회	시민가요제, 세계민속음악여행	덕원색소폰동호회

3) 시립예술단체

(1)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는 1993년에 군포소년소녀합창단으로 창단하였고, 1996년에 정식으로 시립예술단이 되어 군포시립여성합창단과 함께 양대 시립예술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합창단은 관내 초중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고, 오케스트라는 관외 학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임원으로 지휘자 남희, 단무장 김상기, 반주자 이미경 등이 있다. 합창단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1·2, 알토로 구성되고,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는 1997년 ‘미국 디즈니랜드 및 LA 한인문화센터 공연’과 2001년 ‘중국 심천 및 홍콩 연주’, ‘전국소년소녀합창제’, ‘한국합창제’, ‘대한민국 창작합창 Festival’ (2004)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을 계발하며 군포의 문화적 위상을 타 시군에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연간 2회의 정기공연을 시행하며 2008년 기준으로 총 24회의 정기연주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찬조출연 및 기획공연, 각종 대회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2) 군포시립여성합창단

군포시립여성합창단은 1995년 ‘군포시립어머니합창단’으로 창단되어 이듬해인 1996년 ‘난파 음악콩쿨’ 합창부문 대상, 삼성화재 주최 ‘전국여성합창대회’ 장려상을 수상하며 군포의 이름을 알렸다. 1999년에 ‘군포시립여성합창단’으로 개칭한 뒤, 2002년 제2회 ‘경기여성합창콩쿨’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일반 연합합창제’ 및 ‘한국합창제’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으며 군포시 문화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은 임원진인 지휘자 이중대, 단무장 임익홍, 반주 조명선 등과 부문



군포시립여성합창단 정기공연

별(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장,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포시립여성합창단은 2008년 현재까지 23회의 정기공연을 개최하였고 또한 연중 20여 회의 찬조출연과 기획공연, 각종 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헨델의 ‘메시아(제12회 정기연주)’, 모차르트의 ‘레퀴엠(제15회 정기연주)’, 구노의 ‘장엄미사(제19회 정

기연주)’ 등의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다. 그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등의 기획연주를 통해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4) 문화예술회관 상주 예술단체

(1) 세종국악관현악단

세종국악관현악단(단장 박호성)은 한국음악의 현대화·실용화·대중화를 지향하며, 전통음악의 현대적인 재창조, 생활 속의 우리음악 실현을 추구하는 민간 국악관현악단이다. 1992년 12월 10일에 창단하고, 이듬해인 1993년 1월 17일 창단식을 거행하였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은 창단 이후 2008년 현재까지 800여 회의 크고 작은 공연활동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00년 7월 30일에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초청되어 축하공연을 하고, 2002년 월드컵 개막 축하공연 등 대형 행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공연활동을 벌여 왔다. 이 외에도 전통과 현대가 접목된 퓨전 국악 형식의 공연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국악과 친숙해지도록 힘쓰고 있다.

세종국악관현악단은 2000년부터 군포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며 지역 내에서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군포시민의날 공연,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의 해설이 있는 상설 공연 ‘국악이 좋아요’, 새해 맞이 ‘핵은 가고 복은 오소서’, 5월의 효콘서트, 여름특집 ‘국악의 바다로’,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무료 방문공연인 ‘우리 소리 비나리’, 청소년을 위한 무료 국악 강좌와 ‘우리 멋! 우리 가락’ 국악캠프 등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세종국악관현악단 '제아음악회'²⁾

(2)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김흥기)는 1997년 2월 창단한 민간 오케스트라로, 창단과 함께 창단기념음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5회 내외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연간 100여 회의 연주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교향악은 물론 오페라와 발레 등 극음악 반주전문 오케스트라로서 활동하며, 국내 정상급 연주자 및 해외 유명 음악인과의 협연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1998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08년 교향악축제'

2) 박호성의 신나는 국악여행(<http://cafe.daum.net/isejong21>).

년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에서 공연하여 『뉴욕타임즈』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오페라 및 발레 공연에 참가하고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들과 협연하고 있다. 또한 민간 예술단체이면서도 전 단원이 상임으로 구성되는데, 이 점은 단체와 단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0년부터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내 활동으로 '신년음악회',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의 '천원의 행복시리즈'와 군포예총 주관의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에 참여하는 등 연간 10여 회의 기획공연을 시행하며 시민들과 클래식음악의 교감을 쌓고,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5) 지역 문화예술단체

군포시에는 앞에서 살펴본 단체들 외에도 여러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단체의 명단은 <표 3>과 같다. 명단에 수록된 단체들은 군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다. 이 외에도 각종 문화시설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수강생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및 동아리가 적지 않다.

<표 3> 군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문화예술단체 현황

(2009년 1월 5일 현재, 단위: 명)

구분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구분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음악	군포클래식음악동호회	곽상원	28	미술	감꽃창작연구회	이희구	15
	한울림합창단	임승일	45		예인회	강정애	23
	프렌즈합창단	김문자	41	문학	수리시낭송회	김근당	39
무용	군포프리모남성합창단	이중대	30		수리샘문학회	김영애	240
	양대승무용단	양대승	16		산본여성문학회	조선녀	132
	군포청소년무용단	김은령	30		군포여성문학회	이순금	20
	김은희늘샘무용단	김은희	20	국악	한소리에술단	한영숙	18
	군포어머니고전무용단	이금자	40	사진	캐논클럽	강현호	98
미술	이혜경현대무용단	이혜경	10		군포사진연구회	한재수	19
	경기수채화작가회	장인숙	25		군포수리사우회	한정원	19
	산본사랑화우회	송미령	25		노클럽 동호회	이영백	116
	군포여성화가협회	김수희	27	서예	한국서예협회군포시지회	김혜숙	35
	열린화가협회	배선한	53		군포서예가총연합회	홍우기	54
	군포화인아트그룹	오영희	27	기타	군포시꽃예술작가협회	이혜자	62
	연합작가회	강희진	50		군포시꽃예술연합회	김오영	60
	상미회	이선희	25		군포종이공간회	조경숙	20

3. 장르별 문화예술활동

1) 국악

군포시의 국악계는 전문적인 활동 외에도 어린이민요단이나 중고등학교 풍물단 등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악의 전통성에 현대성을 가미하여 새롭게 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관객들과의 만남을 이끌어 내고 있다. 자칫 지루하게 여길 수 있는 국악의 숨겨진 맛과 매력을 소극장무대를 통해 공연함으로써 마당극처럼 관객들의 교감을 이끌어 내 고정적인 관객을 확보하는 등, 군포에서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악 부문의 활동은 주로 한국국악협회 군포지부(이하 ‘군포국악협회’) 회원단체들을 통한 전문적인 활동과 아마추어 동아리들의 활동으로 나뉜다. 군포국악협회는 초대 전순택 회장부터 현 이선형 회장에 이르면서 점차 활발하게 지역사회에 국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재 군포시에서 이뤄지는 국악 활동은 풍물과 기악, 민요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풍물 분야에서는 전통문화예술단 ‘누리’, 사물놀이 ‘설악’과 풍물동호회 ‘두레’ 등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 국악을 전공한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누리는 실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공연은 물론 국악 보급을 위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2002년 12월 창립한 ‘둔대농악 보존회’와 함께 지역의 중요한 전통문화자원인 둔대농악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기악 분야



2007 군포태울제 중 산사음악회 국악 공연

에서는 국악을 전공한 여성연주인들로 구성된 국악실내악단 '비상'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군포시에 국한된 단체는 아니지만, 세종국악관현악단이 기획공연을 통해 퓨전국악을 선보이고 있다. 민요 부문에서는 경기민요를 노래하는 '소리향', 군포문화원의 협력단체인 '한소리에술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각 단체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단체 간의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타악 중심의 누리와 실내악 중심의 비상, 그리고 민요의 이영미 등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 모여 2006년에 국악예술단 '해밀'을 창단하였다. 해밀은 국악의 창작과 교육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군포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아 가고 있다.

주요 활동 단체로는 한국국악협회 군포지부, 경기민요 소리향, 국악실내악 비상, 둔대농악보존회, 사물놀이 설악, 세종국악관현악단, 전통문화예술단 누리, 풍물패 두레, 한소리에술단 등이 있다.

2) 무용

1994년 10월 7일 제6회 군포 시민의날 축하공연에서 무용인 양대승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굿 예능보유자 박병천과 함께 무용공연을 선보였다. 이는 지역의 무용인들이 모이고 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이하 '군포무용협회')가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10월 군포무용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초대 회장으로 양대승이 선출되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진도북춤과 승무, 살풀이춤 전수자인 양대승 회장은 '양대승무용단'과 함께 협회 창립기념공연으로 '우리춤 한마당'을 선보이며, 지역 무용계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연예술인 무용은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 군포시민회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공연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초창기에는 야외무대이전, 학교 강당이전 가리지 않고 공연할 수밖에 없었다.



제4회 전국수리무용콩쿠르(2007)의 경연 모습

2000년대 들어서는 제반 시설 여건이 1990년대에 비해서 한결 나아졌고, 개별 단체의 활동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2001년에 양대승무용단은 경기무용제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고, 2002년에는 창작무용 '젯빛하늘'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동일 작품으로 전국무용제에서도 은상을 수상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2년에 '군포청소년무용단'이 창단된 데 이어 2003년에는 '김은희무용단'이 창단되었다. 그 중 한국무용을 전공한 김은희는 2004년 '네티즌이 뽑은 젊은 춤꾼'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은희 무용단은 2006년부터 경기무용제에 참가하여 2007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09년에는 '心. 세 석평전을 그리며'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1998년경부터 군포에서 활동을 시작한 현대무용가 이혜경은 군포시민회관의 무용강좌 수강생을 중심으로 2001년 '군포수리무용예술단'을 창단하여 지역축제와 공연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2002년 '이혜경 현대무용단'과 함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무용극 '판타지 나이트'를 선보였으며, 매년 정기공연을 하고 있다.

한편, 2003년부터 군포시 주최, 군포무용협회 주관으로 '전국수리무용콩쿠르'가 개최되고 있다. 한국무용(전통무용, 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세 부문에서 경연을 벌이며, 2006년부터 신설된 종합대상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주요 활동 단체로는 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 군포어머니고전무용단, 군포청소년무용단, 김은희늘샘무용단, 양대승무용단, 이혜경 현대무용단 등이 있다.

3) 문학

군포시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이곳에 동지를 틔 시인들과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시 중앙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문인들이 더러 수리산 자락의 풍광에 이끌려 내려와 있었다. 1996년 5월 김상일, 임현영, 박현태, 김용하, 이경희, 윤모춘 등의 문인이 뜻을 모아 한국문인협회 군포지부(이하 '군포문인협회')를 발족하였다. 초대 회장으로 김상일 평론가가 선출되었으나 곧바로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여, 10월 17일에 임시총회를 거쳐 부회장이었던 박현태 시인이 제1대 군포문인협회장으로 추대되었고, 현재는 김용하 회장이 재임하고 있다.

군포문인협회는 창립하던 해 10월에 제1회 시화전과 제1회 군포시민백일장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동인지인 『시민문학』 제1호를 발행하면서 군포 지역에 문학의 시대를 열었다. 이후로도 주민자치센터 등



2008 군포태을제의 시화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

에서 글쓰기교실을 운영하고, 소식지·어린이신문·동인지 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립도서관에서 외부 문인초청 강연을 열고, 문학기행이나 거리 순회 시화전 등을 개최하며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96년 군포문인협회 산하에 문예창작교실인 '수리샘문학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안양 문인협회의 배준석 시인이 운영하는 '군포여성문학회'와 여성회관 글쓰기강좌 회원들의 모임인 '산본여성문학회'가 활동하고 있어 여성문학회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12월에는 군대 농민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소설가 이무영의 문학비가 능안공원에 세워졌다.

2000년대 들어 군포시의 문학계는 많은 변화와 함께 더욱 풍성해지게 된다. 중앙 문단에서 인정받는 젊은 문인들이 속속 등장하였고, 원로 문인들이 집필과 작품집 발간 등의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문인층은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문인들의 진출입도 적지 않았다. 2005년에는 군포시에 거주하다가 고양시 일산으로 이주한 한국 수필문학의 원로 윤모춘이 지병으로 타계하였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던 평론가 임헌영이 서울로 이주하였다. 또한 현대시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위선환 시인이 군포에 자리 잡았고, 시인 박찬일과 주목받는 젊은 소설가 김영래가 군포의 문인으로 합류하게 된다. 현재 군포시의 문단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중앙 문단에서 확고한 위치에 있는 평론가 문혜원도 군포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설가 성석제 역시 주소를 군포에 두고 있다.

최근 문인들의 주요 활동을 보면, 평론가 조병무는 10년간의 작업 끝에 2002년 말, 전 6권의 『한국소설묘사사전』을 출간, 문학사에 남을 저작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문화관광부 우수학술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룩했다. 또한 2008년에는 군포문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현태 시인이 2008년 열세 번째 시집 『여행지에서서의 편지』를 출간하였고, 영문학자 출신의 김동호 시인도 『오현금』을 출간하였다. 이처럼 원로 문인들의 왕성한 활동이 눈길을 끄는 중에 중견 문인인 아동문학가 박소명은 200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당선되기도 했다.

문학계 내에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군포여성문학회, 산본여성문학회, 수리샘문학회, 수리시낭송회 출신의 아마추어 문학 지망생들이 문학수업을 받고 문인으로 등단하기도 했다. 또한 각 문학단체에서 유명 문인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강연회를 통해서 군포를 다녀간 유명 문인들 중에는 김승옥, 조병화, 고은, 도종환, 안도현, 나희덕, 조정래, 정현종 등이 있다.

이처럼 문학계는 군포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예술 분야 중 하나이다. 전공부문 역시 시와 수필, 소설, 평론, 아동문학 등이 고르게 분포하며, 노장과 소장 문인들이 어우러져 작품 활동과 함께 교분을 이어 가고 있다.

주요 활동 단체로는 한국문인협회 군포지부, 수리시낭송회, 수리샘문학회, 산본여성문학회, 군

포여성문학회 등이 있다.

4) 미술

군포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 분야의 하나가 바로 미술이다.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이하 '군포미술협회')는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큰 주제를 안고 1997년 5월 지역 미술인들이 함께 모여 '군포미술인의 만남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제1대 회장으로서는 송정섭 회장이 선출되었고, 현재는 한국화 전공의 강희진 회장이 재임 중이다. 크게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소·공예 등으로 나뉘며, 재적 인원 기준으로 75명의 회원이 있다.

군포미술협회와 별개로 독자적인 미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및 동호회도 많이 있다. 다른 장르의 동호회는 대개 아마추어 모임인 데 비해서 미술 분야의 동호회에는 오랫동안 정기전과 개인전을 가지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룹들이 많다. 아마추어로 시작하여 오랫동안 회원전, 그룹전 등을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른 작가들의 단체와 전공·비전공자가 함께 소규모 동인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10여 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열린화가협회를 비롯한 서양화 계통의 그룹, 수채화를 그리는 '경기수채화작가회' 등이 있다. 한국화 부문에서는 군포시여성회관의 강사이며 한국화의 중진인 담원 김창배와 그 수강생으로 구성된 '군포여성화가협회'가 있다. 서예 부문에서는 군포문화원의 이윤주 부원장과 '군포서예학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각이라는 독특한 예술세계를



군포미술협회 정기회원전(2008)

선보이는 진공재와 그 문하생들로 구성된 '한국서예협회 군포지부' 등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여 명 이상의 미술인이 군포시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중에는 서로 명단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서양화 부문에서는 김계환·오영희·한혜진, 한국화에 전창봉·강희진, 서예 부문에 김문태·전예숙, 조소·공예 부문에 한철수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역 미술계의 활동상을 보면, 1997년에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가 창립기념전(제1회 정기 협회전)을 개최하고, 이듬해에 제2회 정기 협회전 및 지역 내 미술단체들의 통합 전시인 '제1회 군포향토작가초대전'을 개최하면서 지역 미술계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해외 미술을 소개하는 '베트남작가 초대전'과 미술인재 발굴을 위한 '수리학생미술대전'(현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군포시민대축제 기간에는 군포미술협회와 관내 미술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군포아트페스티벌' 전시가 개최되었고, 군포미술협회 회원들이 축제포스터를 대형 걸개그림으로 직접 제작하여 시청 청사에 걸어 축제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2007년부터는 국내 유명화가 초청전시인 '대한민국 중심작가전'을 개최하였다.

2006년과 2008년에는 군포시문화예술회관과 지역 미술계가 합동으로 '군포아트페어'를 개최하여 작가들의 부스전과 함께 캐리커처, 판화체험 등 방학기간을 이용, 학생들에게 미술적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다. 2007년과 2008년의 군포태을제 기간에 중심상가에서 진행된 '군포아트플래그진'은 미술, 서예, 사진 등을 총망라하여 내·외부 작가 27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며 미술전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활동 단체로는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 군포서예가총연합회, 감꽃창작연구회, 경기수채화작가회, 군포여성화가협회, 군포화인아트그룹, 산본사랑화우회, 상미회, 연합작가회, 열린화가협회, 한국서예협회 등이 있다.

5) 사진

군포시 사진인들의 활동은 대부분 동호회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1989년에 설립된 '군포사진연구회'가 지역 최초로 출범한 본격적인 사진동호회였다. 그전에도 농심, 유한양행, 서진산업 등 회사 내에 사진동아리가 있었지만 일반 사진동호회로는 제1호라 할 수 있다.

군포사진연구회는 유원식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출범하여 초창기에는 매년 10월 7일 시민의날에 맞춰 사진전을 개최했다. 1993년에 군포문화원이 창립하면서 지원을 받게 되어 그해 10월에 '군

포사진인초대전'을 열었고, 이후 정기회원전을 5월에 개최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총 17회의 정기전을 비롯하여 관내 사진인들과 합동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군포의 행사와 풍경 등을 담은 기록 작업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은 2004년 군포예총의 '예인예술제' 부대행사인 '추억의 군포&아름다운 군포전'이나 '군포8경' 책자에 수록된 자료사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현재 한재수 회장이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매월 2회의 야외 촬영과 주 1회의 품평회를 통해 서로의 작품에 대해 조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 단체로 '군포수리사우회'가 있다. 이 단체는 1995년에 초대 이학철 회장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1996년 창립 회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1회씩, 2008년 현재까지 총 13회의 정기전을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2004년과 2005년 군포를 주제로 한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관내의 다른 사진동호회와 합동으로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정원 회장이 직무를 맡고 있으며, 군포시 외에도 안양지역합동촬영회 및 사진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두 단체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중심단체이며, 몇몇 동호회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에이스포토'는 온라인 단체로서 오프라인의 정기전은 개최하지 않고 있다. '캐논클럽' 동호회 역시 온라인 단체이며, 안양·안산·군포 지역 사진인들이 합동으로 모여 있는 단체이다. 군포시자원봉사센터 내 사진봉사단체인 '포토군포'와 노클럽동호회에서 독립한 '골드홈사우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몇몇 단체가 활동하다가 중단하기도 했는데, 여성 사진인들의 모임인 '무지개사진동호회'와 '초록사진동호회'는 현재 활동이 없는 상태이다.

주요 활동 단체로는 군포사진연구회, 군포수리사우회, 골드홈사우회, 에이스포토, 캐논클럽 동호회, 포토군포 등이 있다.

6) 연극

군포에서 최초로 활동한 극단은 주부와 직장인 등 아마추어들로 이루어진 극단 '수리산'이다. 이 극단은 1993년 고등학교 연극반 출신인 김송희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소인극대회 참가 및 어린이날 시민들을 위한 공연 등을 하며 군포 지역에 연극 활동의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단원



수리사우회 회원전(2008)

들의 잦은 변동과 전문연극인의 부재로 2000년 ‘어머니’를 공연한 이후 활동이 중단되었다.

1997년 산본 중심상가에 어린이연극 전용극장인 산본아트홀이 개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 연극인의 공연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군포시에는 마땅한 공연장이나 연습장이 전무한 상태였고, 1998년에 군포시민회관이 개관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공연장을 갖추게 되었다. 이즈음에 본격적인 전문극단 창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민중극장에서 활동하던 배우 조현건이 군포시와 안양시에 거주하는 전문연극인들을 주축으로 하여 1998년 10월 극단 ‘연극마을’을 창단했다. 또한 동시에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이하 ‘군포연극협회’)가 창립되어 조동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전문연극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군포연극협회는 창단공연으로 김동기 작, 조동관 연출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마차’를 군포시 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하고 태을단막극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금시조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정정인이 2000년 극단 ‘금시조’를 창단하여 합류하면서 군포연극협회의 자원은 더욱 풍성해지게 되었다.

2001년에는 극단 연극마을과 금시조가 제19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에서 뮤지컬 ‘유랑극단’으로, 대상을 수상하고, 조현건이 연출상, 정정인이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그해에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연극제 본선대회에서도 은상을 수상하면서 군포 지역의 연극은 화려하게 개화의 시기를 맞이한다. 이후 조현건이 군포연극협회장을 맡으면서 극단 연극마을과 함께 군포의 연극계를 이끌게 된다. 극단 연극마을은 유랑극단의 수상을 계기로 매년 ‘오이디푸스’, ‘가스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의 뮤지컬을 제작, 공연하였다.

모든 예술활동이 그러하듯이 연극 역시 생계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기가 힘들다. 더구나 무대예술의 경우는 제작비라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연습장소를 갖춰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극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던 극단들이 해산되었는데, 극단 금시조도 2004년 정정인 대표가 의왕시로 이사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고 단체 역시 해산하였다. 현재는 연극마을과 더불어 1999년 창단한 인형극단 ‘친구들’(대표 김성수), 산본아트홀의 부설극단인 ‘서울레퍼토리컴퍼니’(대표 양대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연극마을은 연극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04년에는 러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140주년 역사극 ‘연해주 길마중’을 기획하여 러시아의 고려인무용단 ‘아리랑’, 극단 ‘연극마을’, 러시아무용단 ‘라두가 발쇼이 까뮈’와 함께 전국순회공연을 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러시아 니콜스-우수리스크 국제 클래식 연극제에 한국대표로 초청되어 ‘서울에서 만난 체홉’을 공연하는 등 해외 문화교류에 눈을 돌리고 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서 군포연극협회는 2007년부터 ‘군포시 창작 단편 뮤지컬 축제’를 열

고 있다. 이 행사는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고유
의 문화브랜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요즘의 추세에
서, 군포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우수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요 활동 단체로는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극
단 연극마을, 인형극단 친구들, 극단 서울레퍼토리컴
퍼니 등이 있다.



창작 단편뮤지컬 축제(2007)

7) 연예

연예 분야는 특성상 대부분 연예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연
예활동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군포지부(이하 ‘군포연예협회’)의 역사와 그 내용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군포연예협회는 1999년 7월 창립하고 안영숙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전까지 군
포시에 거주하던 회원들은 대부분 안양지부에 속해서 활동하였고, 과천시나 의왕시도 같은 실정
이었다.

군포연예협회 내에는 5개의 전문위원회가 있다. ‘가수위원회’, 작사·작곡 분야의 ‘창작위원
회’, 개그맨·탤런트·영화인 등이 속한 ‘연기위원회’, ‘무용위원회’,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위원
회’ 등이다. 창립 초기에는 중고등학교를 위한 ‘청소년 그린 콘서트’, 시민들의 노래 솜씨를 뽑내
는 ‘왕중왕 가요제’, ‘장애인 가요제’ 등을 주관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2004년 2대
강신웅 회장이 선출되면서 지역의 공연문화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군포시민가요제’, ‘세계민속
음악여행’ 등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군포태을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한여름 쿨 페스티
벌(숲속 푸른 음악회), 눈 내리는 겨울밤 추억의 포크 이야기 등 다양한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한 2007년에는 제14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시상식을 군포시에 유치하여 유명 아이돌 그룹과 연예
인이 대거 군포시를 방문하였으며, 시민체육광장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들의 공연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활동하는 회원으로는 그룹 ‘벗님들’의 기타리스트 출신으로, 2004년 대한민국 연예예술
상 작곡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현재 작곡가로 활동 중인 강신웅 회장과 ‘사랑아 이제는’을 발
표한 가수 정탁, 2005년 앨범을 발표하고 ‘재회’라는 곡으로 방송활동 중인 가수 신나, KBS 전국
노래자랑 악단의 색소폰 연주자 최재훈, MBC 개그박스 출신의 개그맨이자 MC로 활동하는 안재덕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군포에서 노래강사, 연주지도 강사, 아동극단 운영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 군포시 출신의 연예인 중 대중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인물로는 트로트 가수 위급자, 가수 춘자, 탤런트 이다해 등이 있다.

주요 활동 단체로는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군포지부, 덕원색소폰동호회, 유채울 등이 있다.

8) 음악



‘가을밤의 음악축제’ 포스터

군포시에서 이룬 가장 큰 음악적 성과 중의 하나는 전국수리음악콩쿠르일 것이다. 1995년 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이하 ‘군포음악협회’)의 창립과 더불어 시작된 수리음악콩쿠르는 2008년까지 14회를 치르는 동안 전국적으로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상위권 콩쿠르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회는 1회부터 10회까지 군포음악협회가 주관하다가 2005년 11회부터 군포예총으로 이관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군포음악협회에서는 전국수리동요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음악인들이 시민과 친숙하게 된 계기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활동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공연장에서 접하는 클래식 음악의 엄숙함을 버리고 야외무대에서 가까이 만나는 세미클래식 공연

은 뜻밖의 성공을 거두어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 아이템이 되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중 음악의 거대한 물결에 점차 관객을 빼앗기고 있던 클래식 음악이 야외공연이나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군포시의 음악인들은 관공서나 병원, 교도소 등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연주하는 등 차츰 활동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단체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군포시의 음악계를 대표하는 군포음악협회는 1995년 설립되어 초대 김영철 회장을 거쳐 현재 곽상원 회장이 재임하고 있다. 회원들의 전공을 보면, 성악과 기악 분야가 가장 많으며, 그 밖에 작곡과 지휘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성악 부문에는 소프라노 이명자와 메조소프라노 유애리, 기악 부문에는 피아니스트 오소영, 지휘 부문에는 곽상원 회장, 작곡 부문에는 장석기 회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군포음악협회의 주요 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전국수리동요대회 외에 연중 1회의 정기공연인 ‘가을밤의 음악축제’와 관내 합창단들의 축제인 ‘수리합창제’이다. 그중 2005년부터 지역 내 합창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는 수리합창제에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 단체로는 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 군포시립여성합창단, 군포프리모남성합창단, 상록수합창단, 성민실버합창단, 클래식음악동호회,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렌즈합창단, 한울림합창단 등이 있다.

9) 기타 장르

지금까지 다룬 주요 예술 장르 외에 꽃꽂이 분야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군포시꽃예술연합회’(회장 김오영)는 1992년 ‘군포꽃꽂이협회’로 창립, 2003년 ‘군포시꽃예술연합회’로 개칭하였다. 군포문화원의 ‘웃내골문화제’의 꽃꽂이전시를 통해 작품 전시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정기회원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7년과 2008년 당장초등학교 특수반 원예치료를 담당하는 등 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2004년 창립한 ‘군포시꽃예술작가협회’(회장 이해자)도 매년 정기전시회를 개최하고, 군포시여성회관의 꽃꽂이강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포종이공간회 '한마음 소망전' (2008)

종이공예 분야의 활동도 활발한데, ‘군포종이공간회’(회장 조경숙)가 1996년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3년부터 정기전을 시작하여 종이로 만든 가구, 웨딩드레스, 종이조각 작품 ‘십장생’ 등 섬세하고 뛰어난 공예작품들을 선보였다. 2001년에는 ‘군포수리문화예술제’의 체험마당에서 시민들과 함께 종이접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후 2006년까지 군포시 축제에서 종이접기행사를 벌였다. 그 밖에도 관내의 복지관과 안양시의 메트로병원 등에서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를 통한 손치료봉사를 10여 년간 계속하고 있으며, 작품 판매 수익으로 회원들과 함께 군포시장장애인복지관 장애우들의 ‘서울나들이’ 행사를 7년째 계속하는 등 봉사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주요 활동 단체로는 군포시꽃예술연합회, 군포시꽃예술작가협회, 군포종이공간회 등이 있다.

제3장 일상에서 만나는 비일상, 지역축제

곽상원 | 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장

1. 지역축제의 현황과 변천 과정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축제가 지역문화의 꽃처럼 인식되면서 각 자치단체는 ‘지역 정체성 정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혹은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등의 목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축제는 양적으로 급성장하여 한 해에 전국적으로 900여 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특색 없이 다른 사례를 모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거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참신하고 독특한 기획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관 주도에서 민 주도의 축제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나열하던 형태에서 보다 주제가 명확한 축제로, 규모보다는 내실을 지향하는 축제로 변화하는 경향이다.

2009년에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군포시에서도 1992년부터 ‘웃내골문화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여 왔다. 웃내골문화제는 1996년부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포지부(이하 ‘군포예총’으로 약칭)가 개최한 ‘태을예술제’와 더불어 1990년대 군포시를 대표하는 지역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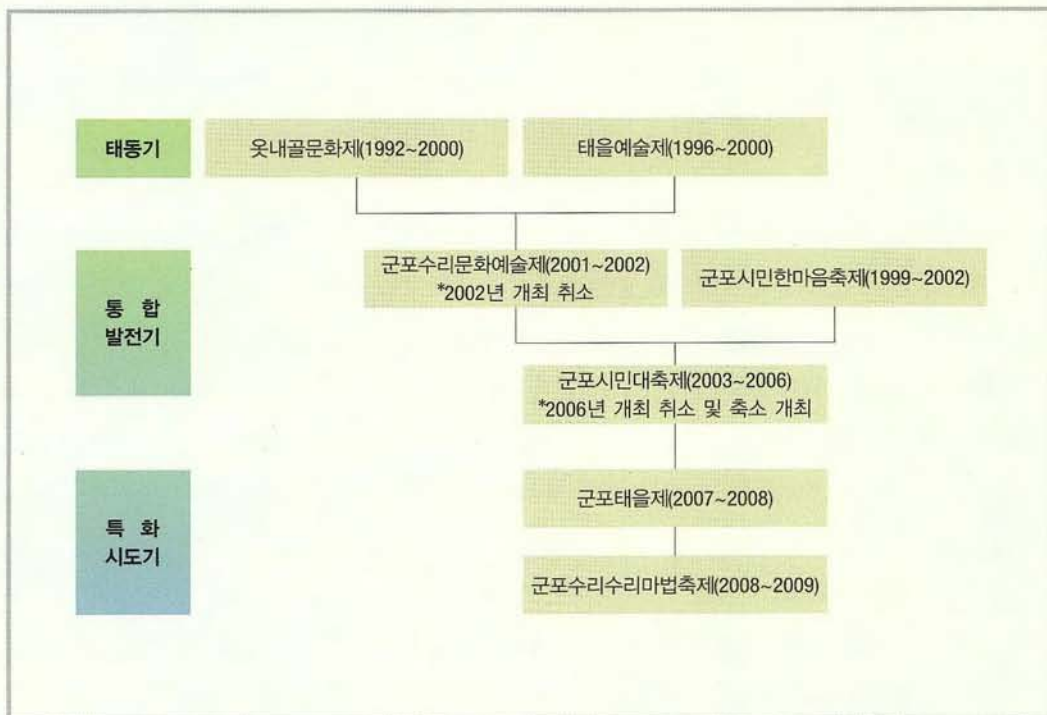
었다. 이 두 축제는 2001년에 ‘군포수리문화예술제’로 통합되었고, 군포수리문화예술제는 2003년부터 ‘군포시민의날 행사’의 일환인 ‘군포시민한마음축제’와 통합되어 ‘군포시민대축제’가 되었다. 군포시민대축제는 2006년까지 4회 동안 개최되었고, 2007년부터 ‘군포태을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웃내골문화제’부터 ‘군포태을제’까지 군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들은 일정 정도 문화예술 분야에 초점을 두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축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화된 축제를 개최하려는 최근의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군포시에서도 2008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축제는 마법과 환상을 주제로 함으로써 기존의 마술축제와는 차별화되었다. 군포시는 2008년 10월 군포시민의날 행사 전야제에 맞춰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앞으로 군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포시의 경우,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변화가 심하였다. 이는 축제를 풍부하게 해 줄 콘텐츠가 부족하였던 점과 더불어 지역축제의 역사가 짧은 와중에서도 축제를 발전시키고 역량을 키워 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컸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개최된 군포시 지역축제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제1기는 태동기로, ‘웃내골문화제’와 ‘태을예술제’가 대표적인 축제였다. 이 시기는 산본 신도시가 개발되는 등 군포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역량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분출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제2기는 통합발전기라 할 수 있는데 ‘군포수리문화예술제’와 ‘군포시민대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였다.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경향이 나타나던 때였으며, 군포시에서도 기존의 축제들을 통합하여 지역 내 문화적 역량을 결집한 축제를 개최하였다. 제3기는 특화시도기로, 기존 축제 및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하고자 시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2007년과 2008년에 개최된 ‘군포태을제’에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으로 제2회를 맞이한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군포태을제는 2회만 개최된 채 중단되었고,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는 아직 특화된 축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군포시를 대표해 온 지역축제 외에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개최되었거나 개최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철쭉동산축제’를 들 수 있는데, 이 축제는 2003년부터 철쭉 개화시기에 맞춰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축제는 독립된 축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군포시민대축제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군포당숲제’, ‘디딤돌문화제’ 등이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서 개최되고 있다.

한편,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던 1990년 초중반의 경우, 각 지역별로 시민의날 또는 군



군포시 대표축제의 변천 과정

민의날 행사가 지역축제를 대표하기도 했다. 군포시에서도 매년 10월 7일 군포시민의날을 전후로 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그간 군포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들과 결합하여 치러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분리되어 진행되기도 하였다. ‘웃내골문화제’와 ‘군포시민한마음축제’도 시민의날 행사와 연계되어 치러졌다. 현재 군포시민의날 행사는 다른 축제와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발전, 지역경제 발전, 문화예술 발전, 교육 발전 등 6개 부문의 군포시민대상 및 유공자 표창, 군포가 배출한 저명하고 활동력 있는 공인을 시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위촉패를 수여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2007년에는 군포 출신의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요정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의날 행사에서는 체육대회가 중요 프로그램이므로 여기서는 이 행사를 제외하고, 지역의 대표축제와 각종 사회단체가 주도하여 개최하는 중소규모 축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려 한다.

2. 시기별 대표축제의 특징과 내용

1) 태동기의 축제

(1) 옷내골문화제

‘옷내골문화제’는 시 승격 후 개최된 최초의 축제로서, 군포시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0년과 1991년에 개최된 시민의날 문화행사를 계승하였다. 1992년 군포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기존 시민의날 문화행사를 확대하여 ‘옷내골문화제’라 할 것을 확정하고, 그해 10월 7일에 제1회 축제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 ‘옷내골’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조선시대에 군포가 ‘금천현(衿川縣)’에 속했다고 잘못 알려졌기 때문인데, ‘금천’의 한자가 ‘옷깃 금(衿)과 ‘내천(川)’으로 구성되었기에 이를 ‘옷내골’이라는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한 것이다.¹⁾ 그러나 군포 지역은 금천현이 아니라 과천현(果川縣)에 속했고, 두 현이 합쳐졌을 때의 명칭도 금과현(衿果縣)이었다. 따라서 옷내골문화제는 2001년부터 ‘태을예술제’와 통합되어 ‘군포수리문화예술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제3회 옷내골문화제(1994) '어린이 서예전'



제9회 옷내골문화제(2000) '꽃꽂이 전시회'

¹⁾ 당시 '옷내골문화제' 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인 『군포신문』에서도 고정 칼럼의 명칭을 '옷내골 칼럼'이라 하여 이 지명을 사용하였다. 이에 향토사학자인 유지호가 금천현과 군포 지역이 공간적으로 무관함을 밝힘으로써 이 지명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 축제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군포시민의날을 전후로 하여 매년 10월에 개최되었다. 군포시가 주관한 제1회와 제2회는 개최공간 협소 등으로 전시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산본신도시 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군포문화원이 설립되어 직접 축제를 주관한 1994년 제3회부터는 개최기간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표 1〉 연도별 옷내골문화제 개요

연도	날짜	장소	행사 내용
1992(제1회)	10. 5~9.	시청회의실 등	제1회 군포아가씨선발대회, 시민노래자랑대회, 꽃꽂이 전시, 사진 전시, 서예 전시, 수석 전시, 전통공예품 전시, 주부백일장 등
1993(제2회)	10. 7~12.	시청회의실 등	시민노래자랑대회, 어머니합창단 공연, 주부백일장, 꽃꽂이 전시회, 여성서예전, 수석 전시회, 사진 전시회, 전통공예품 전시회 등
1994(제3회)	10. 1~14.	시청회의실, 중앙공원 등	휘호대회, 사진촬영대회, 어린이사생대회, 꽃꽂이경진대회, 동별민속공연대회, 한가위 시민한마당잔치, 가장행렬, 시립합창단 공연, 국악 공연, 불꽃놀이, 꽃꽂이 전시, 수석 전시, 전통공예품 전시, 서예작가 초대전, 사진작가 초대전 등
1995(제4회)	10. 7~18.	시청회의실 외 2개소	휘호대회, 시민백일장, 서예작가초대전, 꽃꽂이 전시, 수석 전시, 전통공예품 전시, 전통한지공예전 등
1996(제5회)	10. 4~13.	시청회의실 등	불꽃놀이, 길놀이, 어머니합창단 공연, 시민노래자랑대회 등
1997(제6회)	10. 8~18.	시청회의실 외 2개소	전시,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1998(제7회)	10. 6~10.	시민회관 등	
1999(제8회)	10. 7~21.	시민회관 등	
2000(제9회)	10월	시민회관 등	

출처 : 군포시, 1999, 『군포시사』, 796쪽; 군포시, 1994·2000·2004, 『시정백서』.

비고 : 1992~1996년 ‘옷내골문화제’에 대한 『시정백서』와 『군포시사』(군포시, 1999)의 기록에는 차이가 있으며, 여기서는 기록이 좀 더 상세한 『군포시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1997년 이후 내용은 『시정백서』에 의거하였다.

옷내골문화제는 시 승격 이후 관민이 협력하여 개최한 축제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지니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하는 효과도 얻었다. 다만, 홍보의 어려움과 참여의식 부족으로 축제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가 높지 못했고, 지역 특성상 특화된 소재를 갖지 못하여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2) 태을예술제

‘태을예술제’는 1996년 7월 군포예총 창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지역 예술인들이 전문 예술무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1996년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군포시민회관(현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종합예술제(시민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종합예술제는 제2회인 1997년부터 태을예술제로 이름을 바꾸어 2000년까지 개최되었고, 2001년부터 ‘옷내골문화제’와 통합되어 ‘수리문화예술제’가 되었다.



제2회 태을예술제(1997) '꽃꽃이전시회'



제5회 태을예술제(2000) 개막식 공연

이 축제는 지역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시회, 공연, 백일장 등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행사와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여 독창성이 결여되었고,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성 행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시민의 참여율도 저조한 형식적 행사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표 2〉 연도별 태을예술제 개요

연도	개막일	장소	행사 내용
1996(제1회)	11. 13.	시민회관 등	소속 협회 및 각종 공연 및 전시
1997(제2회)	5. 17.		
1998(제3회)	6. 13.		
1999(제4회)	5. 17.		
2000(제5회)	4. 28.		

출처 : 군포시, 2000, 『시정백서』, 470~475쪽; 군포예총(<http://www.gunpoart.or.kr>).

2) 통합발전기의 축제

(1)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군포수리문화예술제’는 차별성이 부족한 축제와 예술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군포문화원과 군포예총이 ‘웃내골문화제’와 ‘태을예술제’를 통합하고 수리산에서 명칭을 따서 2001년부터 개최한 축제다. 두 축제의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원장과 예총회장이 축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제2회 축제는 2002년 지방선거로 5월에서 10월로 개최가 연기되었고, 군포시민연합회의 ‘한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2001)의 가장행렬에 참여한 주민들

〈표 3〉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2001) 일정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주관
5. 19.	가장행렬	금정초등학교~중앙공원	고적대, 삼국시대 복식재연단, 무술 시범, 동별 가장행렬단 등	추진위원회
	개막식	중앙공원 특설무대	수리산산신제, 의전, 식후공연	
	축하공연		조영남, 이선희 등	
5. 19, 27.	불꽃축제	중앙공원	불꽃놀이, 레이저쇼	
5. 20.	시민건강달리기 기네스대회	시청 앞 열린광장	가족 단위 참여, 경품추첨	생활체육협의회
	성년례	목음재	전통성년례 재현	문화원
	시민결개그림그리기	중앙공원	테마별 자유참여	미술협회
5. 20, 23, 25.	군포문화영화제	시청 야외무대, 대야미역 앞	테마 선정	추진위원회
5. 20, 25, 26.	우리 마을 작은음악회	전지역	소규모 오케스트라	음악협회
5. 21~22.	수리연극제	시민회관 소공연장	금시조, 수리산극단 공연	연극협회
5. 23.	시립합창단연주회	시민회관 대공연장	여성합창단 ·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시립합창단
5. 23~28.	오르세미술관작품전	시민회관 전시실	오르세미술관 작품 70여 점	추진위원회
5. 24.	푸른음악회	시청 야외무대	지역 거주 음악인	음악협회
5. 26.	프로기사 초청 바둑대회	시청 야외무대	프로기사 초청 다면기대회	바둑협회
	청년국악제	중심상가 야외무대	사물놀이, 길놀이, 모듬 북	국악협회
	시낭송회	시민회관 시청각실	애송시 낭송회	문인협회
	시민회화대회	여성회관 대회의실	한글, 한문, 사군자	문화원
5. 27.	청소년축제	시청 야외무대	청소년동아리 중심 축제	청소년동아리 연합회
	군포청년작가미술전	시민회관 전시실	미술협회 회원 정기전	미술협회
기간 중 전일	전국사진촬영대회	시 전역	전 과정 공모	사진연합회
	거리축제		동아리 공연	추진위원회

마음축제'와 통합하여 '군포시민대 축제'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태풍 루사로 전국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군포시민대축제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군포수리문화예술제는 실질적으로 한 해 동안만 독자적인 축제로서 지속되었고, 2003년 군포시민대축제 출범 후에는 이 축제의 하위 축제로서 개최되었다.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는 2001년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개최되었고, 가장행렬을 비롯하여 각종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2001) 개막 축하공연

이 축제는 기존 축제들과 달리 군포문화원과 군포예총 외에도 학원연합회, 민예총, 지방의제21 등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한 37명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시민적 동참을 유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준비기간이 부족하였고, 시청과 예총의 갈등으로 준비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점, 기존에 비해서 과도한 예산이 책정·집행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 과정에서 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축제 진행에 간섭하지 않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행사가 준비 및 홍보 부족으로 파행을 겪은 점 등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 군포시민한마음축제

‘군포시민한마음축제’는 주민 화합을 위하여 군포시 소재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단체인 군포시민연합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축제다. 1999년에 제1회 축제를 시작하여 2002년까지 매년 5월경 개최되었으며, 주로 환영 만찬, 자매단체 농·특산물 판매, 향토음식·먹을거리 장터,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 축제는 2002년부터 ‘군포수리문화예술제’와 통합되어 그해 10월에 ‘군포시민대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해에 태풍 루사로 군포시민대축제는 개최되지 못하였고, 2003년부터 군포시민한마음축제, 군포수리문화예술제, 철쭉동산축제를 연계하여 4월에 군포시민대축제라는 이름으로 통합 개최되었다.

한편, 군포시민대축제는 2006년 지방선거로 ‘철쭉동산축제’에 한정하여 축소 개최되었고, 2007년부터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군포시민한마음축제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축제의 취지와 동별 가장행렬 등의 주요 프로그램은 매년 10월 개최되는 군포시민의날(10월 7일) 기념행사에 포함되어 이어지고 있다.

(3) 군포시민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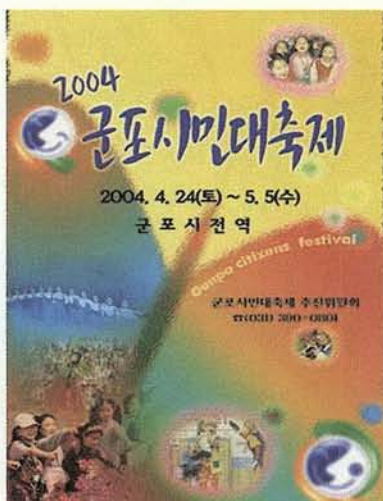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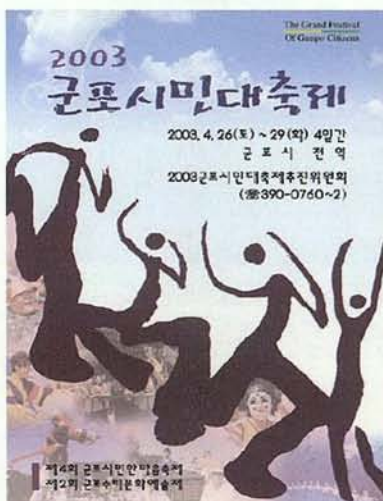
‘군포시민대축제’는 유사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축제를 개발하자는 고민 속에서 기존의 ‘군포수리문화예술제’와 ‘군포시민한마음축제’를 연계하여 개최하였다. 2003년 제1회 축제가 개최되어 2006년까지 지속되었다. 2003년에는 ‘철쭉동산축제’와 별개로 추진되었으나, 2004년부터 통합 개최되었다.²⁾

2003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1회 축제는 시청과 중앙공원, 산본 중심상가, 시민체육광장 등을 행사장으로 하였다. 시청과 중심상가 일대에서는 가장행렬, 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는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26일과 27일 양일간 중심상가와 중앙공원에서는 미술, 사진, 시화 등 각종 전시와 공연이 열렸다. 28일에는 시청 야외무대에서 영화배우 초청 영화제가, 29일에는 실버축제가 열렸다. 이 밖에 먹을거리장터, 자매단체 농특산물 판매, 어린이 미술축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주부기에경진대회, 청소년 댄스경연 등이 축제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제2회 축제는 전야제를 포함하여 2004년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12일간 시청 앞 광장과 시민체육광장, 양지공원, 철쭉동산, 문화예술회관 등을 행사장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축제에서 시행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기존 군포시민한마음축제 프로그램, 중반에는 군포수리문화예술제 프로그램, 후반에는 철쭉동산축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3회 축제는 2005년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4회 축제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기간과 겹치는 문제로 그 하위 축제인 철쭉동산축제를 2006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였다.

군포시민대축제는 시민화합에 개최 목적을 두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축제를 전후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됨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예술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의 축제와 차별화할 만큼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기 어려워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한계를 지녔고,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 ‘군포시민대축제’와 ‘철쭉동산축제’의 경우에는 통합 혹은 분리 문제가 해마다 제기되었다. 분리 개최 시 철쭉꽃의 개화에 맞춰 일정을 결정하기가 용이하고 양 행사의 독립적 개최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반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철쭉축제만으로는 타 지역축제와 비교하여 ‘군포’의 정체성을 강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통합 개최 시에는 인력과 경비 등을 절감하고 시민대축제의 정체성 확보가 용이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다각적인 특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철쭉의 개화시기와 행사기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통합발전기 지역축제의 포스터



제3회 군포시민한마음축제(2001) 축하공연



제1회 군포시민대축제(2003) 행렬



003 군포시민대축제

제1회 군포시민대축제(2003) 축하공연



제2회 군포시민대축제(2004) 중 철쭉동산의 암모암모 공연



제3회 군포시민대축제(2005) 중 고척대 퍼레이드



제4회 철쭉동산축제(2006)의 세계민속여행

〈표 4〉 제2회 군포시민대축제(2004) 일정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4. 24.	길놀이마당	시청 앞 열린광장	매직풍선, 종이접기, 환경체험마당, 페이스페인팅
	환영만찬	시청 대회의실	국내외 자매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초청 만찬
	가장행렬	중심상가 외곽도로	시민, 단체별 테마선정 참여(3,000여 명)
	전야축하공연	시민체육광장 특설무대	인기가수 및 오케스트라 초청, 열린음악회, 불꽃놀이
	거리전시전	중심상가, 중앙공원	미술, 사진, 시화, 공예 등
4. 25.	개막식	시민체육광장	개막선언, 개회사, 환영사, 축사
	문화예술단체 축하공연		해병대 군악대, 부여충남국악단, 댄스(아웃사이다, 군 포문화센터 등), 가수(간아들, 모창가수), 민요(양정초 민요합창단), 합창(시립여성합창단), 무용(김은희무용단) 등의 공연 시민노래자랑(동별 11명, 경찰서 1명)
	경품 추첨		26개 업체 340점(해외여행상품권, 가전제품 등)
	먹을거리장터		향우회별(호남, 영남, 충청, 새군포, 강원, 제주) 향토 음식 판매
	자매단체 농·특산물 판매		자매단체(예천, 무안, 양양, 부여) 농특산물 판매 및 전시
	경로식당 운영		65세 이상 노인 중식 제공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뮤지컬, 마술, 통기타, 합창 등
4. 25~5. 5.	사진촬영대회	시 전역	축제기간 중 촬영 및 시상
4. 27.	실버축제	문화예술회관	어르신 장기자랑, 공연 등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금정제일공원	통기타, 마술, 민요 등
4. 30.	철쭉동산축제	양지공원	축제 참여마당(매직풍선 만들기, 종이접기, 솜사탕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마술 공연 등)
5. 1.		철쭉동산 특설무대	게릴라 공연(스트링앙상블, 팬플룻, 시낭송, 뮤지컬, 마술, 통기타, 설치구)
			추억의 386 음악캠프(이치현, 사월과오월, 원어클락, 이창환)
			게릴라 공연(모듬북, 시낭송, 힙합댄스, 합창, 디지털 앙상블, 플룻독주, 마술)
5. 2.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김덕기, 강무림, 장유상, 김수진)
5. 5.	게릴라 공연(시낭송, 통기타, 중창, 민요, 색소폰 독주, 청소년무용제, 마술 등)		
	암모암모 공연 구연동화, 마술, 양정초 어린이민요합창단 공연 가족뮤지컬 '토끼와 자라 그 후'		

〈표 5〉 제3회 군포시민대축제(2005) 일정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4. 23.	길놀이마당	시청 앞 광장, 청소년수련관	남사당 놀이·마술 등의 공연, 환경코너·건강코너·전통코너·즐거운마당·청소년드라극제 등의 부대행사
	청소년 고적대 퍼레이드	군포역 외 3개소	안산 경일고, 안산정보산업고, 취타대, 동두천여상, 수원공고
	가장행렬	시청~중심상가~시민체육광장	시민, 단체별 테마선정 참여(30개 단체, 3,000여 명)
	전야 축하공연 및 불꽃놀이	시민체육광장	군포프라임오케스트라 공연, 연예인 초청공연(현철, 체리필터, 한해진, 이용)
4. 24.	개막식 공식행사	시민체육광장	개막 선언, 개회사, 환영사, 축하
	문화예술공연		무용 공연, 초청가수 및 국내 자매단체, 전문예술인 공연
	향토음식먹거리장터, 자매단체 농특산물 판매		시민연합회의 6개 향우회, 5개 자매단체(예천, 무안, 양양, 부여, 청양)
4. 25~26.	거리전시	중심상가	학원연합회 미술분과, 연동호회, 환경사진 전시
	군포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회관	군포미술협회 외 관내 8개 미술 관련 단체 참여
	거리공연	중심상가	클래식, 국악, 무용, 대중음악, 락, 연극, 주민참여 행사 등
	야외영화제	시청 야외무대	
4. 25~27.	2005 군포중소벤처박람회	시민체육광장 실내체육관	관내 소재 제조업체 중 유망 중소기업 전시부스 75개 설치, 구인구직의날 행사 개최
4. 26.	어르신한마당 '인생은 60부터'	문화예술회관	고전무용, 실버합창, 가수공연, 어르신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등
4. 28~5. 2.	어린이과학축제 '신나라! 별나라!'	양지공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연합회 등
	봄밤의 음악회	철쭉동산	세계민속음악여행(4월 28일), 환상의 매직서커스(4월 29일), 봄과 사랑의 클래식(4월 30일), 386 추억스케치(5월 1일), 차 향기 나는 꽃동산음악회(5월 2일)
4. 30~5. 1.	한낮의 콘서트 '꽃 속에 음악 속에'	철쭉동산	청소년축제 및 관내 전문예술인·동아리단체 공연

〈표 6〉 제4회 군포시민대축제(2006) 일정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4. 27.	봄과 사랑의 클래식	철쭉동산	
4. 28.	세계민속음악여행		
4. 29.	청소년 어울마당		
4. 29~30.	한낮의 콘서트 '꽃 속에 음악 속에'		매직마임, 뮤지컬, 무용, 국악, 통기타
	자연체험마당		철쭉을 주제로 한 체험
	사랑의 편지쓰기		
	나만의 우표 만들기		
4. 30.	386 추억스케치		

비고 : 지방선거로 하위 축제인 '제4회 철쭉동산축제'만 개최되었다.

3) 특화시도기의 축제

(1) 군포태을제

‘군포태을제’는 ‘군포시민대축제’를 이어서 2007년과 2008년에 개최되었다. 군포시의 역사와 정서가 담긴 명칭을 찾는 과정에서 시민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수리산의 옛 지명을 축제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옛 지도에서는 현재의 수리산이 수리산과 태을산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현재의 안산시 쪽은 수리산, 군포시 쪽은 태을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축제는 특화된 문화축제의 색깔을 갖고자 축제개발팀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추진되었다. 제1회는 ‘수리산의 봄’을 주제로 2007년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2회는 ‘판타지아 군포’를 주제로 2008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축제 모델을 만드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전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다 보니 단체 간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양상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축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군포시 전역에서 거점별 축제를 진행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양시켰으며, 기존에 비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축제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 군포태을제 수리산의 봄
4. 21(토)~29(일) 군포시 전역

1. 봄날의 음악회(남포동성당 / 19:30)

- 4. 20(금) "2007 남포동성당" 제1회
- 4. 21(토) "한국의 전통악기 연주회"
- 4. 22(일) "봄의 사랑과 희망의 노래"
- 4. 23(월) "봄의 사랑과 희망의 노래"

2. 달빛의 세아공원(군포시 지역)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 달빛동굴, 달빛,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3. 태을제 축제공연(남포동성당)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4. 태을제 축제공연(남포동성당)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5. 달빛의 세아공원(군포시 지역)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 달빛동굴, 달빛,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6. 달빛의 세아공원(군포시 지역)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 달빛동굴, 달빛,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7. 태을제 축제공연(남포동성당)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8. 태을제 축제공연(남포동성당)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9. 태을제 축제공연(남포동성당)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10. 태을제 축제공연(남포동성당)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11. 태을제 축제공연(남포동성당)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12. 태을제 축제공연(남포동성당)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13. 태을제 축제공연(남포동성당)

- 행사 : 4. 20(금) ~ 29(일)
- 장소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 내용 :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달빛동굴



2008 판타지아 군포 태을제
5. 2(금)~5(일)

새로운변화와 무한한상상을 펼쳐는 판타지아군포!

공 연 개막식 및 축막공연 5. 2(금) 19:00~22:00 시청앞광장

군포시청앞광장 개막식 및 축막공연 - 판타지아 군포
시민 참여 희망 - 나의 꿈 나의 재능
판타지아 군포
상징 미술

시민체육광장 청소년 문화축제 / 청소년 과학축제
아름다운 재능 행사
수목원 봄 선행

철쭉동산 숲속 음악회 / 꽃길의 봄나들이
시민 참여 희망 / 판타지아 군포
수목원 봄 선행

중심상가 숲속 음악회 / 꽃길의 봄나들이
시민 참여 희망 / 판타지아 군포
수목원 봄 선행

일시: 2008. 5. 2(금) ~ 5(일)
장소: 시청앞광장, 철쭉동산, 중심상가, 시민체육광장
주최: 군포시
주관: 군포시 축제추진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축제사무국 : 031-390-0763



릴레이 테마공연



아트플래그전



시가 있는 산사음악회

제1회 군포태을제(2007)의 주요 프로그램

〈표 7〉 제1회 군포태울제(2007) '수리산의 봄' 일정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4. 21~29.	군포아트플래그전	중심상가	아트현수막 상설전시
4. 21~22.	미술체험	중심상가	손석고, 사군자, 판화체험
	사랑의 편지쓰기	철쭉동산	가족, 친지에게 사랑의 사연 보내기
	어르신 영정 촬영	양지공원	65세 이상 어르신 사진촬영(200명 한정)
4. 21~29.	봄밤의 음악회	철쭉동산	7080낭만스케치(21일), 환상의 매직서커스(22일), 봄과 사랑의 클래식(27일), 꽃과 시와 음악의 밤(29일)
	퀴즈쇼 '열려라! 군포'	각 행사장	군포시 관련 상식문제 풀기
	꽃 속에 음악 속에	철쭉동산	청소년 푸른무대(21일), 시민 푸른무대(22일), 추억의 DJ박스(29일)
4. 23.	공단 퇴근길음악회	당정동 LS전선	황기순(사회), 양하영, 전미경, 핑키비트, 뮤지컬콘서트(연극마을), 사물(설악) 등
4. 24~26.	릴레이 테마공연	금정역, 능안공원, 군포역	사물(누리), 창작판소리(류수곤), 전자현악단(로즈), 뮤지컬콘서트(연극마을) 등
4. 24~29.	수리산 관련 행사	수리산, 수리사	수리산 양반문화를 찾아서(24~27일), 우리가족 숲길 걷기, 시가 있는 산사음악회(29일)
	어린이세상 '신나라! 별나라!'	양지공원	에어바운스, 매직폴로미니, 이지클레이, 매직풍선, 솜사탕, 페이스페인팅 등
4. 28.	축하공연 '봄이 있어 좋은 날'	시민체육광장	
	불꽃축제		
	열창! 시민가수왕		시민노래자랑
	자매단체 농특산물 판매		산지직송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향토먹거리장터		각 지역의 향토음식 판매
	한세대 환경디자인 페스티벌		폐현수막으로 생활소품 만들기 체험
	시작! 비만 탈출		비만도 측정 및 각종 건강체크
	균형 잡힌 성장 예측검사		성장기 어린이에 대한 성장 예측검사



제2회 군포태울제(2008) 개막 축하공연(좌)과 체험마당(우)

〈표 8〉 제2회 군포태을제(2008) '판타지아 군포' 일정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5.1~3.	군포아트플래그전	중심상가	아트현수막 상설전시
5.2.	개막 공연 '판타지아 군포'	시청 앞 광장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양대승무용단(역동하는 태을이여), 미디어아트&퍼포먼스, 대중가수 마야 등 공연, 불꽃쇼
	자매단체 농특산물 판매		산지 직송 농특산물 전시 판매
5.2~3.	초막골양반문화체험	시청 야외무대	
	향토음식 먹을거리장터	시청 주차장	각 지역의 향토음식 판매
	건강체험	시청 야외무대	보건소 운영
	테라피씨어터		
	오카리나 체험		
5.3.	판타지아콘서트	시청 앞 광장	세종국악관현악단, 판타지 퍼포먼스, 성악(임성규, 유미자), 대중가수 추가열·노브레인 공연
	매직풍선&페이스페인팅		
	야외마당극	시청 야외무대	명랑소녀 심청
5.3~4.	시민참여마당 '나의 꿈, 나의 자랑'	시청 앞 광장(3일) 철쭉동산(4일)	
	전국편지쓰기공모전	시청 야외무대	
	전국수리시화공모전		
5.4.	어르신 무료 장수사진 촬영	시청 야외무대	
5.4~5.	청소년과학축제 청소년문화축제	시민체육광장	
5.5.	환경마당	시민체육광장	에너지체험, 환경체험
	배움마당		창작만화전시, 와이어공예 등
	가족체험마당		천연비누만들기, 함께하는 미술, 전래동화놀이 등
	문화체험마당		얼굴그림, 풍물체험 등

(2)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열리는 축제 대부분이 정체성이 없고 대동소이하다는 지적 속에서 '차별화된 축제'를 열기 위해 군포시는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군포시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는 단순한 관람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던 축제를 탈피, 군포의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창조하고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또한 새롭고 대표적인 축제 모델을 만들어 군포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한편, 열악한 재정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획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마법과 에듀테인먼트, 과학을 축제아이템으로 하는 '수리수리마법축제', 동화와 로맨틱·신화를 내용으로 한 '캔디페스티벌', 만월호수 개발을 중심으로 한 '문라이트페스티벌' 등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군포시는 2008년 3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장과 시의원, 예총 관계자,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



제1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2008) 선포식 행사(좌)와 축제 조형물(우)

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논의를 벌여 제1안으로 제시된 퍼포먼스와 매직, 참여축제를 뼈대로 한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를 군포의 축제브랜드로 정하고, 여기에 달콤한 캔디퍼레이드와 반월호수를 배경으로 한 달빛음악회, 호수불꽃놀이 등 제2안과 제3안에 제시된 로맨틱한 내용을 접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법을 주제로 시도되는 축제이며, 그 명칭에는 ‘수리산’과 마법의 주문 ‘수리수리마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연관성을 활용하였다. 초기 계획에서는 마법이라는 콘텐츠에 과학과 교육을 연계하여 축제요소로 활용하고, ‘거리퍼포먼스’, ‘코스프레’, 불꽃·레이저를 활용한 미디어 쇼 ‘수리수리판타지’ 등 3개의 주요 프로그램과 ‘수리수리 마법어워드’, ‘마법영화제’, ‘해리포터와 호그와트전’, ‘마법음악회’ 등의 하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존의 단순한 관람형 축제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호감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었다.

따라서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를 본격 개최하기에 앞서 사전 홍보와 축제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 2008년 10월 10일 시민체육광장에서 ‘제1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이 군포시민의날 전야행사로 거행되었다. 이 축제는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의 축제에 대한 호감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었으나, 거리퍼포먼스, 코스프레, 수리수리판타지 등 3개의 메인 프로그램이 개최되지 않고, 초청가수 공연, 불꽃놀이, 동대항 체육대회 등 매년 시민의날에 개최되던 행사에 단순히 축제 선포식만을 추가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내용의 빈약함과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을 적지 않게 받았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 측면에서 수리수리마법축제는 중심 축제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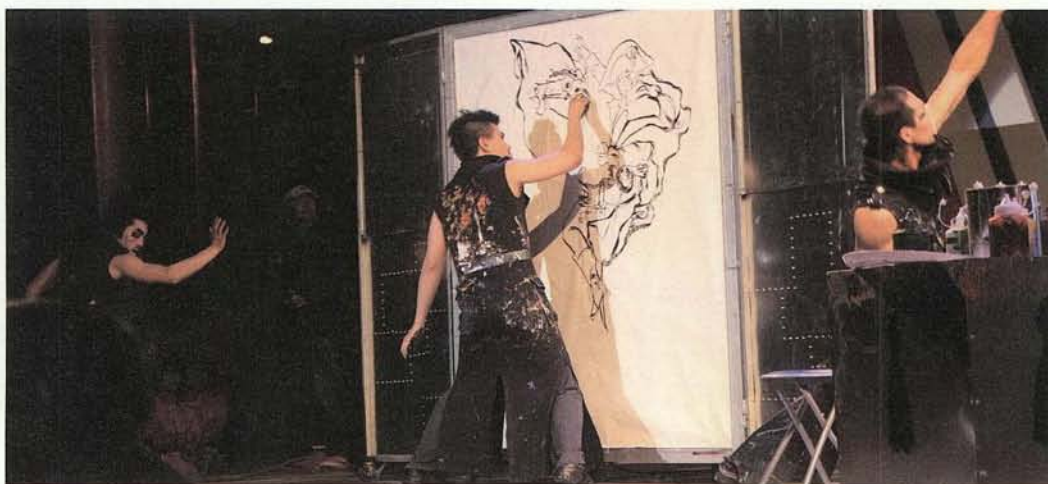
이 축제가 본궤도에 오른 2009년 제2회에서는 마법퍼레이드, 마법의상콘테스트, 마법캐릭터퍼포먼스, 마법영화 상영, 마법미션스쿨, 청소년과학축제 등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행사가 다수 시행되었다. 그러나 비록 마법이라는 이름을 달았을 뿐 유사한 행사나 이벤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았고, 이 축제의 성격과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축제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이자 한계로 보이며, 향후 축제의 성격과 기획의도에 부합하도록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캐릭터 윙키



제2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2009)의 마법 퍼레이드



제2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2009)의 폐막공연

〈표 9〉 2008년 군포시민의날 기념행사 및 제1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 일정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10. 10.	개막공연	시민체육광장	마법 퍼포먼스 '마법의 세계로의 초대', 마술사 김대희 마술쇼
	제1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		플라즈마 카운트다운, 마법축제 팡파르, 오색불꽃의 성화점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법주문, 흰색 헬륨풍선(자유·희망·꿈 상징) 날리기
	시민노래자랑		4일 예심을 거쳐 10일 본선 개최
	인기가수 초청공연		설운도, 서유석, 샤이니, 남궁옥분, 춘자, 홍채린, 청금 등
10. 11.	시민의날 기념식 및 시상식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9개 종목 동별 대항

〈표 10〉 제2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2009) 일정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5. 1.	G.Folk Music	중심상가 분수광장	
	환영 만찬	시청 대회의실	
	개막식 공식행사	시청 앞 주무대	
	도시브랜드 선포식		'O₂ Gunpo' 브랜드 선포식
	마법축제 슈퍼콘서트		대중가수 공연 등
5. 1~3.	먹거리 장터 운영	시청 주차장	각 향우회 및 관내 우수음식점
5. 2.	마법의상 콘테스트	시청 앞 주무대	
	마법영화상영		
	마법 퍼레이드	시청~중심상가	김연아와 시민 참여 퍼레이드, 매직카드·매직패밀리·매직팩토리·매직다크·매직퓨처 등 퍼레이드카
	수리수리 공연페스티벌	중심상가 특설무대	뮤즈, 뽀빠이 등 관내 예술인 및 단체 축하 공연
	청소년과학축제	시청 야외무대	과학과 마법의 만남을 주제로 우주체험부스, 생활과학교실, 별자리 관측 등 운영
5. 2~3.	직거래 장터 운영	시청 주차장	관내 중소기업 식음료 제품 홍보 및 판매, 자매단체 농특산물 판매
	마임캐릭터 퍼포먼스	시청 행사장 내	청소년 전화, 내고장사랑카드, 건강체험코너 등
	시정 홍보코너 운영	시청 주차장	
	페이스페인팅	시청 행사장 내	
	마법 포토존		마법 퍼레이드차 등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
	마술극공연	문예회관	마법삼총사 공연
	군포 예인예술제	시청 앞 주무대	군포시민가요제(2일), 군포시립여성합창단 공연(2일)
중심상가 일원		아트플래그전(2~3일 분수광장),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음악(3일 야외무대), 악극 사랑장터(3일 야외무대)	
5. 3.	청소년문화축제	시청 앞 주무대	청소년동아리·댄스팀·웃찾사 개그맨 공연
	마법미션스쿨	시청 야외무대	마법팔찌·탱탱볼·요술봉·숨사탕 만들기, 핸드프린팅
	기타 체험프로그램		손수건·컵케이크·코사지·천연모기약 만들기, 소방활동 체험, 소원쪽지함
	폐막식 공식행사	시청 앞 주무대	
	희망드림콘서트		윙키 캐릭터 쇼, 대중가수 공연

3.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중소규모 축제들

군포시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외에도 중소규모의 축제들이 사계절 개최되고 있다. 그 축제들은 대체로 관내 각종 사회단체에 의해 개최되고 있으며,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표축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면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환경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군포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규모 축제의 한 예로써 2008년 11월 8일에 산본 중심상가 원형 무대를 주 행사장으로 하여 개최된 ‘군포양반문화축제’를 들 수 있다. 이 축제는 ‘군포시 신(新)성장동력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 군포시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하고, 군포희망포럼, 열린사회연구소, 예문관이 공동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축제 당일에는 사대부가의 전통혼례 재현, 사대부 접빈다례 시연, 가훈 및 휘호 써 주기, 궁중 및 사대부가 전통의상 체험, 민속놀이 체험, 한지로 책 만들기, 전통문화예술 공연 등이 행해졌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주민자치제가 정착하면서 각 동의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소규모 축제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광정동에서는 ‘광정동잔치’라는 형태로, 산본2동과 군포1동 등에서도 공연을 겸한 마을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러한 잔치 역시 전통적인 축제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례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례를 다룰 수는 없기에 축제의 주요 특징인 주기성 혹은 정기성을 고려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2회 이상 개최된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단순한 전시나 공연 혹은 발표회는 제외하고 축제의 대동적 성격에도 부합하는 대표적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사례는 대개 전통문화, 문화예술, 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1) 군포당숲제

‘군포당숲제’는 군포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2006년부터 군포문화원과 덕고개향친회가 속달동 덕고개마을에서 전승되는 군웅제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의 특징은 군웅제와 현대적 이벤트를 결합한 데 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덕고개마을의 당숲과 둔대 초등학교를 축제 장소로 하여 개최되었고, 2008년에는 무대를 좀 더 확대하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군웅제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산본 중심상가에서 진행되었으나 축제 당일 우천으로 일부 프로그램만 진행되었다.

〈표 11〉 군포당술제 개요

연도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2006 (제1회)	11. 21.	군포 옛날 놀이&이야기	둔대초등학교	군포 민요·설화듣기, 장승·깃발·숫대·허수아비·만장 만들기, 찜뽕 체험, 당나귀 타기 등
		'잔치~ 잔치~ 벌렸네'		금관5중주로 듣는 민요, 추억의 동요 가야금 병창, '아리랑 아리랑', 농악과 비보이가 혼인을 하매, 어울림
		당술 벽화그리기	군포2동 지하도	늘 부끄러운 낙서로 얼굴 찌푸리게 되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꾼다
		군웅제	덕고개 당술	제의, 음복례, 잔치
2007 (제2회)	11. 10.	헤이요 굿 옛날놀이	둔대초등학교	12쪽 군포설화 병풍 그리기, 군포설화 전시, 당나귀 타기, 숫대·허수아비·만장 만들기, 가족줄넘기, 돌치기, 널뛰기
		헤이요 굿 잔치		판소리, 도당굿&랩, 어린이봉산탈춤, 둔대판굿&비보이, 아리랑합창
		헤이요 군포장터		고구마 구워먹기, 시루떡 찌기, 신주미 빚기, 뽕기, 뽕튀기, 막걸리, 잔치국수
		군웅제	덕고개 당술	제의, 음복례, 잔치
2008 (제3회)	10. 25.	전통문화예술공연	산본 중심상가	'감투봉명당싸움' 마당놀이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공연, 전통놀이 한마당
		옛 군포장터		먹을거리 축제
	10. 29.	군웅제	덕고개 당술	제의, 음복례, 마을잔치

덕고개마을의 군웅제는 한 해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고 이듬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한편,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신앙이다. 군포문화원에서 지원하는 관내 6곳의 마을신앙 중 유



제2회 군포당술제(2007) '헤이요 굿잔치'



일하게 밤에 행해지며, 전통성과 지역성이 잘 드러나고 있어 다른 마을신앙에 비해서 전통적인 형태의 마을축제 분위기가 짙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군웅제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계승할 젊은 세대가 많지 않아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는 전통문화 전승과 체험을 목적으로 군포시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정월 대보름을 기해 개최한 축제다. 2000년에 ‘대보름맞이 달맞이굿’이 산본 중심상가에서 개최되는 등 이 축제 개최 전에도 정월 대보름맞이 이벤트가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이 축제는 제2회까지 시민체육광장을 주 행사장으로 하여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제2회 축제는 깡통돌리기를 활용한 불꽃놀이 깡통축제를 실시하고, 타악 퍼포먼스, 민요 공연, 소원지 쓰기 등의 행사를 시행하였다.



제5회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2006)

한편, 제3회부터는 관내에서 전통문화가 상대적으로 잘 계승되고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을 재현하기 용이한 둔대초등학교 앞 논을 축제 장소로 선정하고, 명칭을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로 하여 개최되었다. 장소를 둔대초등학교 앞 논으로 옮기면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대표적인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이 기존에 비해 풍성해졌다. 축제의 날짜는 정월 대보름이며, 2007년 제6회 축제의 경우에는 우천으로 정월 대보름 다음날로 날짜를 변경하여 개최되었다.

〈표 12〉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 개요

연도	날짜	장소	내용	주관
2002 (제1회)	2. 26.	시민체육광장	· 지신밟기, 세시놀이 등	군포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추진위원회
2003 (제2회)	2. 15.	시민체육광장 시내 일원	· 지신밟기, 강통돌리기 등의 세시놀이체험 · 달맞이굿 등	군포전통문화보존회
2004 (제3회)	2. 5.	둔대초등학교 앞 논 중심상가 외	· 1부 : 지신밟기(시청, 중심상가, 재래시장 등) · 2부 : 전통문화체험(연날리기 · 제기차기 · 널뛰기 · 줄넘기 등 놀이체험, 쥐불 · 강통 · 달집 · 짚신 만들기 등) · 3부 : 달맞이굿 및 기념공연(풍물, 민요 등), 소원종이 꽃기, 축원고사, 대동놀이, 달집태우기, 쥐불강통놀이 등	군포전통문화보존회
2005 (제4회)	2. 23.	둔대초등학교 앞 논 중심상가 외	· 1부 : 터밟기(관공서, 중심상가, 재래시장) · 2부 : 전통문화체험마당(연날리기, 새끼줄에 소원지 쓰기 등) 및 민속공연(사물놀이, 민요 등) · 3부 : 달맞이 대동놀이(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달맞이놀이, 강강수월래 등)	군포예총
2006 (제5회)	2. 11.	둔대초등학교 앞 논	· 1부 : 체험마당(연날리기, 널뛰기, 윷놀이,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소원지 쓰기) 및 민속공연(품바, 민요, 풍물놀이) · 2부 : 대동한마당(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대동놀이)	군포예총
2007 (제6회)	3. 3.	둔대초등학교 앞 논	· 1부 : 민속마당 놀이체험(대형장기놀이, 윷놀이, 소원지 적기, 연날리기, 널뛰기, 고무마 · 밤구워먹기 등), 민속월레이(줄타기, 버나 · 상모돌리기, 투호, 제기차기 등) · 2부 : 대동한마당(길놀이, 축원행사, 터밟기, 달집태우기, 강강수월래, 쥐불놀이)	군포예총

출처 : 군포시, 2004, 『시정백서』, 421~423쪽; 군포시민신문(<http://www.gpnnews.co.kr>); 연도별 군포달맞이축제 포스터 및 안내장.

3) 군포세시풍속축제

‘군포세시풍속축제’는 전통세시풍속을 알리고 함께 즐기는 축제마당을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개최되는 축제다. 제1회는 2007년 설날을 맞이하여 군포문화원이 주최하고 주관하여 ‘우리 우리 설날은’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2회부터는 정월 대보름을 기해 산본중심상가번영회가



제2회 군포세시풍속축제(2008) 중 널뛰기

주최하고 군포문화원 등이 주관하여 개최되고 있다. 이 축제는 정월 대보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를 이은 축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월 대보름 달맞이축제가 둔대초등학교 앞 논에서 개최되었던 데 비해서 군포세시풍속축제는 그 무대를 산본 중심상가로 옮겨 개최되고 있다.

〈표 13〉 군포세시풍속축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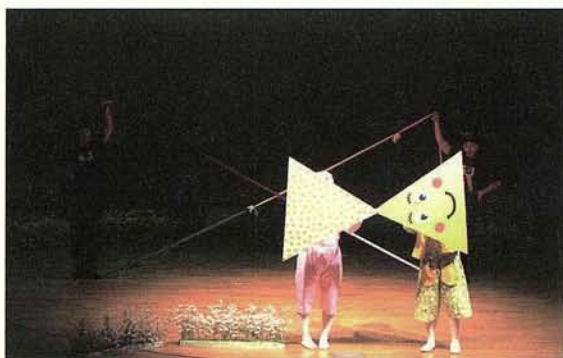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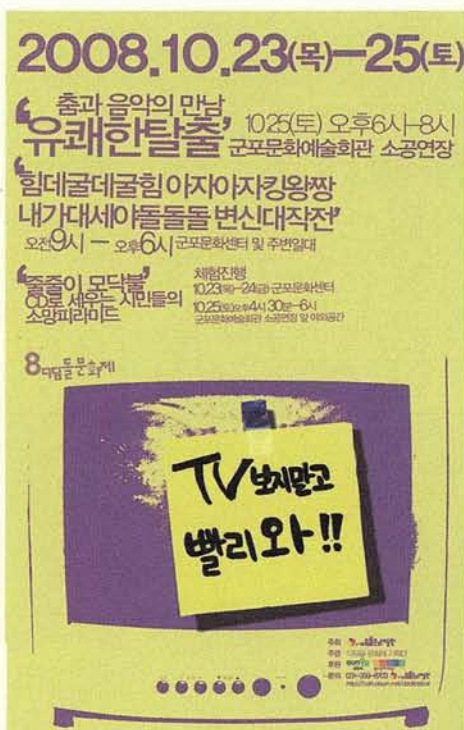
연도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주관
2007 (제1회)	2. 16.	우리 우리 설날은~	중심상가 야외무대	- 공연 : 평양각설이, 경기민요, 둔대농악, 어린이 탈춤 - 체험 : 연 · 복조리 · 빗자루 · 소망지 · 제기 만들기,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 시연 : 한복입기, 세배하기 - 겨루기 : 윷놀이, 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엿치기, 닭싸움 - 바람 : 토정비결	군포문화원
2008 (제2회)	2. 19.	무자년 보름축제	중심상가 원형광장	- 척사대회 - 세시풍속축제(제기차기, 윷점, 투호, 널뛰기, 비석치기, 닭싸움, 엿치기, 토정비결), 휘호 써주기, 음식잔치 - 공연(경기민요, 탈춤, 둔대농악), 지신밟기, 가래떡 구워먹기, 세시에절 시연, 대동놀이	군포문화원 광정방법기동순찰대 빌딩관리소장협의회
2009 (제3회)	2. 7.	기축년 정월대보름축제	중심상가 원형광장	- 기원 : 기원구 등 - 신명 : 군포아리랑, 윷놀이 등 - 나눔 : 귀밝이술, 떡국 등 음식잔치	군포문화원

출처 : 군포문화원(<http://www.gpmunhwa.or.kr>); 연도별 군포세시풍속축제 안내장.

4) 디딤돌문화제

‘디딤돌문화제’는 사단법인 디딤돌문화예술원이 개최하는 축제다. 디딤돌문화예술원은 문화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2001년 1월부터 군포시에서 군포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월경에 열리는 이 축제는 2001년에 제1회 축제가 개최된 이래 2008년에 제8회 축제가 개최되어 민간 주도의 축제로서는 드물게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축제가 다른 민간 주도형 축제와 차별화되는 점은 아마추어 중심의 문화예술축제를 지향하는 데 있다. 소수의 전문 기획자가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일반인과 아마추어 예술인이 팀별 기획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개최하는 지역문화 축제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고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제8회 디딤돌문화제(2008) 포스터(좌)와 공연·시각예술체험(우) 3)

3) 디딤돌문화예술원(<http://calle.daum.net/doddifestival>).

〈표 14〉 디딤돌문화제 개요

연도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2006 (제6회)	10. 21	더불어 느끼고, 더불어 나누고	양지공원	• 공연 : 洞行 우리 함께 가는 길에 • 전시 : 우리 동네 사람들 • 체험 : '빛' 자루를 타고 떠난 상상마을
	10. 26~28.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전시 : 우리 동네 사람들
2007 (제7회)	10. 18~20.	우리가 만드는 아들리에	문화예술회관	• 전시 : 우리가 만드는 '아들리에' (10. 18.~20.) • 공연 : '거위의 꿈' (10. 2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체험 - 천연비누 만들기(10. 18. 문화예술회관 4층 다목적실) - 놀이변신대작전(10. 20. 문화예술회관 야외공간) - 옛놀이 : 자연물 놀이감, 촉감놀이, 여치 바람개비, 추억의 뽑기, 하늘땅 별땅, 달팽이 놀이 등 - 오늘의 놀이 : 빙글빙글 게임판, 예쁜 손 만들기, 야외 뮤지컬, 보드게임 - 미래의 놀이 : 관성 로켓&에어슈터, 아바타 만들기, 다빈치 헬리콥터, 하늘로 우주로 날아보자
2008 (제8회)	10. 23~25.	TV 보지 말고 빨리 와!	문화예술회관	• 공연 : 춤과 음악의 만남 '유쾌한 탈출' • 시각예술 설치 : '힘 데굴데굴 힘 아자아자 킹왕짱 내가 대세야 돌돌돌 변신대작전' • 시각예술 체험 : '줄줄이 모닥불' CD로 세우는 시민들의 소망피라미드

출처 : 디딤돌문화예술원(<http://cafe.daum.net/dddfestival>); 연도별 디딤돌문화제 포스터 및 리플릿.

5) 수리산애반딧불이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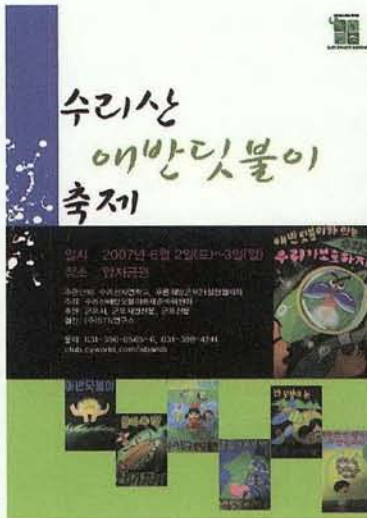
‘수리산애반딧불이축제’는 수리산애반딧불이축제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수리산자연학교와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이 축제의 개최 목적은 도시개발로 훼손된 군포의 자연을 되살리고, 수리산 생태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딧불이의 현황 파악과 개체수 복원, 그리고 서식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자연 감수성을 길러 주고 반딧불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축제로서 수리산 품에 안긴 군포시의 자연환경 홍보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축제는 2006년과 2007년에 개최되었다. 제1회 축제는 애반딧불이가 나타나는 시기인 6월에 초막골에서 개최되었고, 프로그램은 애반딧불이와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교육마당, 체험·참여마당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2회 축제는 양지공원을 주 행사장, 산본 중심상가 일대를 부 행사장으로 하여 개최되었고, 제1회에 비해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반딧불이 서식환경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표 15〉 수리산애반딧불이축제 개요

연도	날짜	장소	행사 내용
2006 (제1회)	6. 2~11.	초막골	· 전시· 교육마당 - 반딧불이 집 : 캄캄한 작은 공간에서 반딧불이 직접 체험 - 사진, 패널, 영상물 등과 선생님께 듣는 반딧불이 이야기 · 체험· 참여마당 - 반딧불이 만들기 : 전구를 이용한 반딧불이 모형 만들기 - 반딧불이 맞추기 블록대회 - 반딧불이 촌락 만들기 : 반딧불이 서식 환경 만들기 - 자연물로 만드는 반딧불이 : 나뭇가지, 마른열매, 나뭇잎 등을 이용한 반딧불이 만들기 - 나무목걸이 만들기 : 나무 조각으로 목걸이 만들기 - 흙이랑 : 흙으로 반디 만들어 보기 - 소원쪽지 만들기 · 먹을거리 마당 · 1일 이벤트 : 국악, 시조창, 별 이야기, 오카리나 연주 등 · 아간자연체험마당 : 기간 중 4일(3, 4, 9, 10일)
2007 (제2회)	5. 31~6. 3.	중심상가, 양지공원	· 반딧불이 영화상영 : 반딧불이, 기후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기간 중) · 반딧불이 홍보사진 전시(5. 31.~6. 1.) · 전시(6. 2~3.) - 사진전 '수리산 들꽃이야기' - 소곤소곤 들꽃마을 : 수리산 들꽃 전시 - 꽃향에 물드는 고향 길 따라서 : 우리 꽃 전시 - 수리산 생명의 흔적, 자연박물관 : 서식처 등 자연생태 환경물 전시 - 뼈뽕뽕 물속마을 민물고기네 : 안양천 수계의 물고기전시 · 체험(6. 2~3.) - 조물조물 흙범벅 : 흙으로 반딧불이 등 곤충 만들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나무 열매 목걸이 만들기, 천연비누 제작 체험, 천연염색 손수건 제작 체험 - 호랑나비 꽃나비 춤추는 동네 : 배추흰나비, 산호랑나비, 호랑나비, 산제비나비 등 관찰 - 우리 동네 희망 찾기 : 소원쪽지 적기 · 공연(6. 2~3.) - 인형극장 '반디야 놀자', '농악 치던 날' - 시조창, 민요, 기타 연주 등 · 교육(6. 2~3.) - 수리산 뚝방과 반디동네 이야기 : 반딧불이 일생 영상교육, 뚝방 조형물 전시 교육 - 희망의 씨앗, 반디 알과 애벌레 : 반딧불이 일생 중 알과 애벌레 관찰 - 책 읽고 기다리며 형설자공의 방 - 내 낮을 간질이는 반디 한 마리, 페이스페인팅 - 희망 축제의 주인공, 반디네 집(애반딧불이 관찰 교육관)

출처 : 수리산애반딧불이축제(<http://club.cyworld.com/abandi>).



제2회 수리산애반딧불이축제(2007) 포스터(좌)와 자연생태환경을 전시(우)⁴⁾

4. 군포시 지역축제에 대한 제언

국내외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축제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지역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관광객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 자율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축제 주제를 부각시키는 뚜렷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그 밖의 프로그램은 단지 주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축제의 단위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공간도 비교적 광범위하고, 축제의 주제와 잘 부합하는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성공요인의 전부라고 볼 수 없으나, 그중에서도 축제의 주제에 부합되는 중심 프로그램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는 축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성공적인 축제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행해진 지역축제, 그중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첫 번째는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한계다. 오늘날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최 지역의 특산물, 역사문화자원이나 관광자원 등을 특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축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는 그러한 자원적 기반이 취약하여 특화된 축제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2008년 군포시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 ‘군포수리

4) 수리산애반딧불이축제(<http://club.cyworld.com/abandi>).

수리마법축제를 개최하였으나, 마법이라는 브랜드와 군포시와의 접점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축제의 소재로 적절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공감대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적 한계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축제의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주민의 주체성 확보 및 지역주민의 정서적 통합을 가져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재 군포시 축제의 기조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데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대체로 바람직한 평가를 받았으나,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이 단체 안배나 의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관내 문화예술단체, 시민단체 등 축제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획일화의 문제다. 군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들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가 부족하여 축제내용이 유사해지고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민노래자랑, 먹거리장터, 연예인 초청공연 등 유사한 형태를 답습하여 지역적 특색이 도출되지 않고 있어 관광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네 번째는 축제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다. 축제에는 대부분 특정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와 잘 어울리는 시간과 장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축제기획에서도 전문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 대표축제는 관 주도형이었고,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하기보다는 일과성 업무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민간 차원의 전문인을 양성하고, 다양한 교육과 벤치마킹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상업성을 지적할 수 있다. 상업성이 지나칠 경우, 진정한 축제정신이 결여된 채 난장이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종류의 물건과 음식물을 파는 장소로 변질되어 축제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 군포시의 경우에도 향우회별로 부스를 설치하여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팔도음식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향우회별로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조성한다든지 하는 공익적인 방안을 찾는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그 지역에 대해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이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역적 고유성·정체성 그리고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진행되는 지역축제는 표피문화의 현상적이고 일시적 표현에 그치기 쉽다.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기간의 즉각적, 가시적 효과만을 원한다면 결코 이루기 힘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축제 참여자 간의 지역적, 문화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 축제가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잘 나타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 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특정 축제를 조직하려 하거나 반강제적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지역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뿐이다.

다음으로 축제를 공동체의식의 표현으로 인식해야 한다. 축제 주최 측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존재하지도 않는 공동체의식이 행사 몇 번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축제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식이다. 이런 공동체의식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은 축제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축제는 없는 공동체의식을 창조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축제를 벌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의전행사가 빠지지 않는 관 주도 축제를 주민이 주인인 축제로 바꾸어야 하고, 마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대부분 축제에서 의전행사가 빠지지 않는데, 이는 관 주도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그 형식도 문제다. 시의원, 국회의원, 단체장의 지루한 소개나 인사말 등의 절차는 축제의 본질적 의미와도 거리가 멀며 주민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여 이 축제를 ‘나의 축제’로 인식하기 힘들게 만든다. 축제 속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집단이 견고하게 구성되기 위해 마을집단의 응집성은 필수요소다. 주민들 마음 속의 구심점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마을 수준의 인재와 소공동체모임, 민간집단 육성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지역축제의 추진 역량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축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자부심의 표현임을 인식해야 한다. 축제를 만들고 참여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주민 스스로가 주인공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끌어당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물질적 보상인 경우에는 일시적 효과는 나타날지 모르나, 그 축제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 버리기 쉽다. 반면, 정신적인 충족감이 라면 은근하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축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즐기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다. 유럽의 축제들 중 관광자원화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들을 보면, 해당 축제 속에 그 지역의 정체성이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제4장 문화예술행사의 특징과 현황

곽상원 | 한국음악협회 군포지부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군포시도 축제와 예술제를 혼용하여 진행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축제와 예술제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축제가 참여와 공동체적 인식의 기능이 있다면, 예술제는 대중적인 의미보다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위주로 진행된다. 또한, 축제는 참여 단체와 해당 주민들의 대중적 참여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예술제는 보다 전문적인 해당분야 예술인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차이점이 있다.



대표적 문화예술행사의 하나인 '숲속푸른음악회'

여기에서는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다룰 수 없으므로, 그중 전문적인 예술제 행사와 전국 규모 경연대회 성격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시점을 2008년까지로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예술행사 중 일부는 전문 예술축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1. 예술제 유형의 문화예술행사

1) 창작단편뮤지컬축제

‘창작단편뮤지컬축제’는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와 군포시문화예술회관이 2007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젊고 패기 있는 신진 예술가에게 뮤지컬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좋은 뮤지컬 레퍼토리를 발굴하여 장편 뮤지컬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창작 뮤지컬 관객층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작 뮤지컬 제작 지원과 관객 무료입장을 실시함으로써 창작 뮤지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7년 제1회는 ‘섞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단편뮤지컬’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제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창작 뮤지컬을 활성화하고, 강연회와 시연회를 통해 선진 공연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새로운 형식과 끊임없는 소재 개발을 통해 진정한 창작의 장을 마련한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주최측에서 뮤지컬 제작경력 10년 이내의 3개 팀을 선정, 창작극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콩깍지(조민영 작, 황태선 연출)’, ‘발자욱(김용호 작, 이계창 연출)’, ‘그린아피(이기성 작, 박세철 연출)’ 등 젊은 신진 예술인들의 신선한 발상과 감각이 돋보이는 창작 단편 뮤지컬이 공연되어 좋은 평을 받았다. 또한 기간 중



제2회 창작단편뮤지컬축제 ‘비상’ (2008) 포스터

〈표 1〉 창작단편뮤지컬축제 개최 현황

연도	날짜	행사명	내용
2007(1회)	8. 9~11.	창작단편뮤지컬축제 ‘섞임’	- 공연 : 단편 뮤지컬 제작 프로젝트 3개 팀 5작품, 사운드 퍼포먼스 1작품, 대학생 뮤지컬 콘서트, 뮤지컬 갈라쇼 - 부대행사 : 어린이 뮤지컬 소풍(공연장 견학, 어린이 인형 뮤지컬), 입체음향 체험(사운드 퍼포먼스, 입체음향 체험장) - 학술행사 : 특별강연(청문대 방송연기학과 교수 이원기), 무대강연(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 겸임교수 김준섭)
2008(2회)	9. 4~6.	창작단편뮤지컬축제 ‘비상’	9월 4일 : 뮤지컬 장면 콘테스트, 개막식 9월 5~6일 : 뮤직 레시피(예락팀), 사년후愛(리조이스팀), 달다방으로 오세요(모도트룸팀), 쓸쓸한 새벽 두시(사람사랑), 착한여자(맥트리스)

에 뮤지컬 공연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학술행사를 함께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08년 제2회는 '비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새로운 형식과 끊임없는 소재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창작 뮤지컬 축제가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뮤직 레시피(예락팀)', '사년후愛(리조이스팀)', '달다방으로 오세요(모도트럽팀)', '쓸쓸한 새벽 두시(사람사랑)', '착한여자(맥트리스)' 등 창작 단편 뮤지컬 다섯 작품이 공연되었다. 각 작품은 하루 1회 45분씩 이틀간 공연되었다. 또한 첫날에는 배우지망생이나 단체가 참가하여 기존 뮤지컬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뮤지컬 장면 콘테스트가 부대행사로 실시되었다.

2) 군포예인예술제

군포예인예술제는 사단법인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군포지부(이하 '군포예총')가 예술제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전문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대중적인 반향감은 부족한 대신에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예술의 세계를 표현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문단체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2003년 12월에 제1회가 개최된 이래 2008년 9월에 제6회가 개최되었다.

군포예총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 중 하나로 1996년 7월 20일에 창립하였다. 음악, 문학, 무용 분야를 시작으로 창립한 이래 현재까지 음악, 문학, 무용, 미술, 국악, 연극, 연예 등 7개 분야의 지부가 회원단체에 속하며, 50여 개의 아마추어 동아리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3회 군포예인예술제(2005)의 수리합창제



제1회 군포예인예술제(2003) 국악 공연



제4회 군포예인예술제(2006) 중국 가면극 변검 공연

〈표 2〉 군포예인예술제 개최 현황

연도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2003 (제1회)	12. 18.	우리춤 우리가락 한마당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용협회, 국악협회 및 국악인 초청공연으로 노인계층을 위한 공연
	12. 19.	겨울밤을 위한 연가		음악협회, 연극협회, 문인협회 시낭송 등 합동공연 및 게스트 출연, 지역사회봉사자, 환경미화원, 소년소녀가장 등 초청
	12. 20.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시청 대회의실	예총 회원, 시청 및 문화예술회관 관계자, 언론사, 시의원 등 문화예술 관계자
2004 (제2회)	12. 10~13.	전시행사	시청 대회의실	추억이 담긴 군포전, 아름다운 군포전, 군포비전·군포스토리 책자 보급
	12. 10.	연극공연 '누가 누구'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주부들을 위한 연극 공연과 특별 이벤트
		복지관예술제 '함께하는 이웃'		관내 복지관 및 문화센터, 노인대학 등의 수강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공연, 전시 등을 통한 발표 및 참여 기회 제공
	12. 11.	합동 워크숍	시청 대회의실	군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합동 워크숍
		중고생을 위한 청소년 음악축제 '우리 세상'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줌으로써 입시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 비전을 제시
	12. 12.	386세대를 위한 특별 콘서트 '추억과 낭만 속으로'		IMF 이후 위축되었던 386세대를 위한 올드 팝, 가요, 재즈 등 추억의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 한마당
2005 (제3회)	12. 13.	모든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BEST'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를 비롯한 각종 야외공연 내용 중 가장 우수한 부분을 엄선
	12. 16.	관내합창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시 내 활동 합창단 참여
	12. 17.	제2회 군포시민가요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민 노래자랑
2006 (제4회)	12. 18.	종합예술공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메인공연 '소리와 움직임'
	12. 15.	초청강연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시인 이재무(한신대 교수)
	12. 16.	베스트 뮤지컬 collection 연주	산본중심상가 야외무대	지킬&하이드, 미스 사이공, 물랑루즈, 미녀와 야수 등의 주제곡
		제3회 군포시민가요제		시민 노래자랑
	12. 17.	국악과 무용의 향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리와 움직임' 메인공연
	12. 19.	수리합창제		군포 관내 활동 합창단 참여

연도	날짜	행사명	장소	내용
2007 (제5회)	9. 15.	제4회 군포시민가요제	중심상가 야외무대	시민 노래자랑
	9. 16.	한가위맞이 무용 대공연		입춤, 살풀이춤, 군무, 발레, 낯선 거리를 스쳐, 발리댄스, 살풀이춤, 매화산조, 비조, 부채춤, 승무, 대지의 꽃 공연
	9. 18.	수리합창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내 소재 합창단(상록수여성합창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한울림합창단, 성민실버합창단, 경기원음합창단, 프리모남성합창단, 코리아프렌즈합창단, 군포시립여성합창단)과 챔버오케스트라가 참여, 마지막 공연으로 연합 합창
	9. 22.	한가위 국악한마당	중심상가 야외무대	비나리, 앓은반 사물놀이, 경기민요, 국악실내악, 국악가요, 상모판굿 공연
2008 (제6회)	9. 21.	젊은 창작 안무가전	중심상가 야외무대	1부 : 한국 창작 '가득 찬 빈손' (2008년 전국무용제 동상 수상작), 한국 전통춤 2부 : 젊은 창작 안무가전 '차세대 젊은 춤꾼'
		창작 뮤지컬 '뮤직 레시피'		서로 다른 음악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알아간다는 내용의 뮤지컬
	9. 25.	수리합창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원음합창단, 한울림합창단, 프렌즈합창단, 프리모합창단, 아가페파이어, 군포시립여성합창단, 러블리중창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민실버합창단, 성민소년소녀합창단 등 관내 10개 중창단과 합창단이 참여
	9. 28.	가을 속의 우리 소리	중심상가 야외무대	비나리, 앓은반 사물놀이, 경기민요, 국악 실내악, 프린스 오브 제주, 재즈를 위한 창작곡 '방황', 선반판굿
	10. 10.	제5회 시민가요제	시민체육광장	본선 10일, 예선 4일(군포시여성회관)
	10. 15~25.	대한민국 중심작가 초대전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군포시에서 활동하는 한국미술협회 회원 및 대한민국 유명작가들의 작품 전시
	10. 18.	시민 백일장	능안공원	시민과 함께하는 백일장 대회

2.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행사

1)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전국수리음악콩쿠르는 음악의 저변 확대와 우수 음악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전문적인 음악 경연대회다. 199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08년 제14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명성을 얻고 있다. 군포시가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재정·행정 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수리음악콩쿠르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제1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1995) 피아노 부문 경연 모습



제14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2008) 성악 부문 경연 모습

〈표 3〉 전국수리음악콩쿠르 개최 현황

(단위 : 명)

연도	날짜	장소	참가 대상	경연 부문	참가자수	입상자수
1995(제1회)	2. 14~20.	시청 대회의실	초, 중, 고	피아노, 동요	152	10
1996(제2회)	5. 6~10.	"	초, 중, 고, 대학일반	피아노, 성악, 동요	255	17
1997(제3회)	6. 16~20.	"	초, 중, 고	"	314	47
1998(제4회)	5. 18~21.	문화예술회관	초, 중, 고, 대학일반	"	578	60
1999(제5회)	9. 6~9.	"	"	"	464	47
2000(제6회)	5. 29~6. 2.	"	"	"	634	66
2001(제7회)	6. 4~8.	"	"	"	427	66
2002(제8회)	9. 30~10. 4.	"	"	"	438	60
2003(제9회)	5. 12~17.	"	"	피아노, 성악, 현악	428	55
2004(제10회)	5. 17~22.	"	"	"	483	61
2005(제11회)	5. 23~28.	"	"	피아노, 성악	666	50
2006(제12회)	5. 22~31.	"	"	"	541	50
2007(제13회)	5. 14~26.	"	"	"	483	47
2008(제14회)	5. 12~23.	"	"	"	430	50

출처 : 「콩쿠르정보」, 전국수리음악콩쿠르(<http://www.suriconcours.org>).

1995년 제1회 대회에서는 피아노와 동요 부문만 치렀고, 제2회부터 성악이 포함되었다. 제2회에는 참가자격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외에 대학일반부가 추가되었다. 당시에는 대학일반부 경연을 격년제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제4회부터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8회까지는 현 전국수리동요대회에 해당하는 동요 부문이 경연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9회와 제10회 대회에서는 동요 대신 현악이 추가되었고, 제11회 이후로는 현악 부문이 제외되었다.

현재 전국수리음악콩쿠르는 피아노와 성악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피아노 부문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가 참가하고, 성악 부문에는 고등부, 대학일반부가 참가하여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뉘어 경연한다. 그리고 고등부 이상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상금이 수여되며, 고등부와 대학일반부 입상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오케스트라와

의 협연 기회를 제공하는 입상자 음악회를 개최하여 역량을 발휘할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 전국수리동요대회

전국수리동요대회는 컴퓨터에 중독되다시피 하는 어린이들에게 편안하고 감미로우면서 안정적인 심성을 일깨워 주는 데에 동요의 보급과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악을 통한 정서 순화와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음악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표 4〉 전국수리동요대회 개최 현황

연도	날짜	경연 부문	참가자수	입상자수
2003(제9회)	10. 6~10.	독창, 중창, 합창	독창 120명 중창 14팀 합창 1팀	독창 50명 중창 5팀 합창 1팀
2004(제10회)	5. 17~22.	"	독창 148명 중창 14팀 합창 5팀	독창 40명 중창 6팀 합창 5팀
2005(제11회)	5. 23~28.	독창, 중창	독창 181명 중창 21팀	독창 54명 중창 10팀
2006(제12회)	5. 24~26.	"	독창 191명 중창 12팀	독창 52명 중창 12팀
2007(제13회)	5. 24~26.	"	독창 204명 중창 16팀	독창 42명 중창 6팀
2008(제14회)	5. 12~13.	"	독창 232명 중창 17팀	독창 71명 중창 6팀 지도교사상 3명

출처 : 「동요대회 정보」, 전국수리음악콩쿠르(<http://www.suriconcour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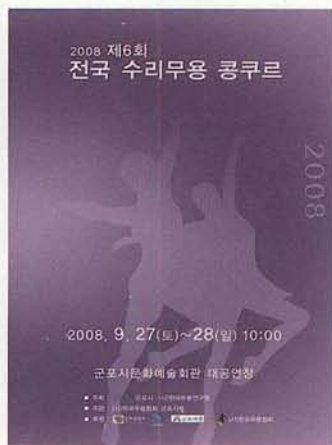
제14회 전국 수리동요대회(2008) 경연(좌)과 포스터(우)

전국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는 2002년까지 전국수리음악콩쿠르의 동요 부문으로 시행되다가, 2003년 제9회부터 독자적인 대회로 분리되었다. 분리 첫해인 2003년에는 10월에 개최되었으나, 다음해부터는 전국수리음악콩쿠르와 비슷한 시기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9회와 제10회 대회부터는 경연 부문이 세분화되어 독창, 중창, 합창 등 3개 부문으로 시행되었으나, 제11회부터는 독창과 중창 부문만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 독창은 2개 학년씩 나누어 1·2학년부, 3·4학년부, 5·6학년부로 진행된다. 이 밖에 제14회부터는 지도교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3) 전국수리무용콩쿠르

전국수리무용콩쿠르는 선의의 경연을 통하여 교육무용의 이념을 실현하며, 무용의 저변 확대와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무용 경연대회다. 2003년부터 군포시가 주최하고 한국무용협회 군포지부가 주관하여 매년 9월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 대회는 학생부(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와 일반부(대학생 및 일반인)로 나누어 한국무용(전통무용, 창작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세 부문에서 경연을 벌인다. 각 부문별로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차례로 독무 경연을 한 후 부문별 군무 경연을 진행한다. 시상은 종합대상, 대상, 최우수상, 금·은·동상, 최우수지도자상으로 나뉘는데, 특히 2006년부터는 종합대상을 신설하여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함으로써 대회의 격을 높였다.



전국수리무용콩쿠르의 경연 장면(2007)과 포스터(2008)

〈표 5〉 전국수리무용콩쿠르 개최 현황

연도	날짜	장소	참가자수
2005(제3회)	9. 4.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75팀
2006(제4회)	9. 10.		
2007(제5회)	9. 9.		
2008(제6회)	9. 27~28.		136팀

출처 : 전국수리무용콩쿠르(<http://cate.daum.net/suricon>).

4) 대한민국 태을서에 · 문인화대전

대한민국 태을서에 · 문인화대전은 지역 서도(書道) 문화를 활성화하여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고 인재를 발굴하려는 취지로 2005년부터 개최된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다. 또한 군포의 대표적 상징경관인 군포8경을 홍보하기 위해 입상자들에게 군포8경 홍보를 위한 표지석 건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명칭 중 태을(太乙)은 수리산의 주봉인 태을봉과 군포8경 중 제1경인 ‘태을일출(太乙日出)’을 뜻한다. 제1회부터 제3회까지는 군포문화원 주최였고, 제4회는 군포시 주최, 군포문화원 주관이었다.

이 대회는 별도의 장소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각 참가자들의 작품을 접수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1인당 서체를 달리하여 3점 이내에서 출품이 가능하다. 심사는 한글, 한문, 문인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공개심사 형태로 진행되며,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부에서는 대상·우수상·삼체상·특선·입선을 시상하고, 학생부에서



제4회 대한민국 태을서에 · 문인화대전(2008) 수상작 전시회

〈표 6〉 대한민국 태을서에 · 문인화대전 개최 현황

연도	날짜	장소	비고
2005(제1회)	접수 : 8. 26~27. 전시 : 10. 6~15.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06(제2회)	접수 : 8. 20~22. 전시 : 9. 25~10. 3.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07(제3회)	접수 : 8. 30~9. 1. 전시 : 10. 9~26.	군포여성회관	
2008(제4회)	접수 : 9. 27~28. 전시 : 9. 25~10. 1. 전시 : 10. 9~14.	군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제4회 대회 수상작 전시 태을서에대전 초대작가 전시

는 대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특선 · 입선을 시상한다. 수상 작품 중 우수상까지는 별도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제1회 대한민국 태을서에 · 문인화대전 수상작 200점은 2005년 10월 군포시민의날을 기념하여 문화원이 개최한 ‘네 가지 색깔 전시회’의 하나인 제14회 군포서예학회전에 전시되었다. 2008년의 경우에는 그간 이 대회가 배출한 작가들의 초대전이 군포시민의날 기념 미술전시회와 함께 열리기도 했다.

5)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는 신진 작가 발굴과 창작 의욕 고취, 지역의 미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및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미술 경연대회다. 참가 부문은 수채화(풍경화, 자유화), 한국화(풍경 수묵 · 담채), 디자인(발상과 표현, 자유화), 판화(고무판화), 서예, 크레파스화, 파스텔화이다. 우수상 이상 작품은 일본 아즈키시와의 교류전에 참가할 수 있다.

〈표 7〉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개최 현황

연도	날짜	장소	행사 내용
2006(제8회)	10. 28.	수도사업소 잔디광장	참가부문 : 수채화, 유화, 한국화, 서예, 아크릴화, 크레파스, 발상과 표현 참가자격 :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
2007(제9회)	10. 27.	양지공원	참가부문 : 수채화, 유화, 서예, 서양화, 아크릴화, 크레파스 등 참가자격 :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
2008(제10회)	11. 1.	능안공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전국 규모로 참가 범위를 확대 참가부문 : 수채화(풍경화, 자유화), 한국화(풍경 수묵 · 담채), 디자인(발상과 표현, 자유화), 판화(고무판화), 서예, 크레파스화, 파스텔화 참가자격 :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출처 :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http://www.artgunpo.com>); 군포신문(<http://www.gunponews.net>).

이 대회는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이하 '군포미술협회')가 1999년부터 군포의왕교육청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수리학생미술대전'이 모태다. 이 대회는 회화, 서예, 공예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2005년까지 총 7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대회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2006년에는 '수리청소년미술사생대회'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군포미술협회와 군포신문사가 공동 개최하여 200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는 명칭을 '전국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로 바꾸어 전국 규모로 확대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도교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3. 2008년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

군포시 관내에서는 수많은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개최횟수가 많고 잘 알려진 것은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와 '숲속 푸른 음악회' 같은 음악 분야의 행사들이다. '거리夜 페스티벌', '철쭉 물빛 콘서트', '여름야외영화제', '천원의 행운시리즈' 등도 지역 내에서 잘 알려진 행사들이다. 이 외에도 많은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가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한 행사들은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진작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각 단체나 문화시설 등에서 행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하고 2008년 개최되거나 기획된 문화예술행사의 개략적인 현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2008년 주요 문화예술행사 현황

행사명	날짜	장소
수리샘문화회 동인지 제7집 발간	1. 11.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Violinist 강동석 초청 신년음악회	1. 13.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연주회	1. 15.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월 상상극장 '빼제로의 꿈'	1. 15~26.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샤론무용아카데미 '샤론의 춤추는 아이들'	1. 25.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미협 제12회 정기회원전	1. 25~26.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세종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 '새해 소원성취하소서'	1. 26.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화의 여유를 만나는 시간 '길에서'	1. 31.	군포문화센터 1층 로비
어린이뮤지컬 '파워레인저 트레저포스'	2. 2~3.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월 상상극장 '아기여우 뽀꾸의 모험'	2. 12~23.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라이어	2. 13~16.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달콤한 발레타인데이 '뮤지컬 갈라 콘서트'	2. 14.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아카펠라 다이아의 쇼콜라	2. 17.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행사명	날짜	장소
출터 이레무용 정기공연Ⅲ	2. 19.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2경 수리사표지식 제막식	2. 21.	수리사 경내
연합작가회 수채화전시회	2. 21~27.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천상의 목소리 임형주 콘서트	2. 23.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	3. 7~8.	문화예술회관
김기철 콰텟 Jazz Concert For Spring	3. 12.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장사익&김덕수의 White Day	3. 14.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백건우 초청연주회'	3. 16.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상상극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토끼야 위험해'	3. 18~29.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어린이뮤지컬 '방귀대장 뽕뽕이'	3. 22~23.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화의 여유를 만나는 시간 길에서 '해금듀엣연주'	3. 27.	군포문화센터 1층 로비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08 새봄 음악회'	3. 28.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 제23회 정기연주회	3. 29.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4~10월 중	시 전역
유럽 정통 마리오네트 '목각인형콘서트'	4. 4~6.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화의 여유를 만나는 시간 길에서 '동화뮤지컬'	4. 11.	군포문화센터 1층 로비
중국 시아스국제대학교 뮤지컬 '중국나비(Chinese Butterfly)'	4. 11~12.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08 젊은 우리음악축제 '해밀의 색다른 여행'	4. 12.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제83회 가족극장 '피노키오'	4. 15~26.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제22회 군포시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재즈, 가요, 합창의 만남'	4. 17.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서예가협회 서예전	4. 17~21.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군포경찰서 참수리밴드 '제3회 함께해요 We Start음악회'	4. 18.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8회 예인화전	4. 22~26.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2008 군포미협 정기전 '수리산의 꿈전 및 아트마켓'	4. 28~5. 4.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4. 29.	중앙도서관 야외주차장
2008 군포태울제 전국 편지쓰기 공모전	5. 3~4.	시청 앞
제1회 전국 수리 사회작품 공모전	5. 3~4.	시청 앞
세상에서 제일작은 개구리왕자	5. 5.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화의 여유를 만나는 시간 길에서 '해아 방과후 교실'	5. 8.	군포문화센터 1층 로비
독일 뮐처청소년합창단(Toelzer Boys Choir) 첫 내한공연	5. 1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4회 전국수리동요대회	5. 12~13.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84회 가족극장 하영훈 인형극단의 '해를 삼킨 고양이'	5. 13~24.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어린이뮤지컬 '헨젤과 그레텔'	5. 14~17.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김성희 서양화전	5. 14~20.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제14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5. 14~23.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7회 성년례(成年禮)	5. 18.	목읍재(군포시청 뒤)
한자공예전	5. 21~27.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진보라 피아노콘서트 '보라빛 재즈'	5. 24.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기획음악회 '제자사랑음악회'	5. 27.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빨간 모자	5. 30~31.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챔버오케스트라 가정의달 기념음악회	5. 31.	군포문화센터
사랑해요 엄마!	6. 5.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도자기예술작품전시회	6. 5~10.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행사명	날짜	장소
제8회 상미회전	6. 11~14.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어린이오페라 '마술피리'	6. 13~14.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수리동요대회 시상식	6. 14.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제85회 가족극장 '곰돌이의 아프리카여행 해님달님'	6. 17~28.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퍼포먼스 'JUMP'	6. 20~21.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화의 여유를 만나는 시간 길에서 '극단 숨은그림의 마음'	6. 26.	군포문화센터 1층 로비
가족뮤지컬 정글북	6. 26.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라이어3탄 '튀어!'	6. 28~29.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여성주간 기념식 및 기념공연	7. 1.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마당극 '맹진사댁 경사'	7. 1.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8 해밀의 색다른 여행 '너영 나영'	7. 4.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창작가족인형극 '애기똥풀'	7. 4~5.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열린화가협회 정기전	7. 4~7.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제86회 가족극장 '사랑에 빠진 개구리'	7. 8~19.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제2회 '하하 호호 군포UCC' 공모전	7. 9~18. 7. 30.(시상식)	군포문화원
유럽 정통 마리오네트 '목각인형콘서트'	7. 19.	중앙도서관 소극장
여름아외콘서트 '한여름밤의 꿈'	7. 19.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앞 야외무대
군포설화로 떠나는 상상여행	7. 21~24.	군내초등학교
군포문화센터 무료공연 길에서 '바이올린 연주회'	7. 23.	군포문화센터 1층 로비
세종국악관현악단 제7회 청소년국악캠프	7. 23~26.	세종국악관현악단 연습실,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목음재
여름아외콘서트 '한여름밤의 꿈'	7. 26.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2008 여름 야외영화제	7월 말~8월 초	시청 야외무대
한여름 쿨페스티벌 '삼색테마콘서트'	8. 6~20. 매주 수요일	중심상가 야외무대
숲속 푸른 음악회	8. 9~23. 매주 토요일	수리산삼림욕장 야외무대
군포아트페어 '미술! 시민에게 열다'	8. 9~29.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및 야외공연장
제87회 가족극장 '알라딘과 요술램프'	8. 12~23.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군포문화센터 무료공연 길에서 '힙합댄스'	8. 13.	군포문화센터 1층 로비
군포프라임필하모닉의 베스트 클래식	8. 17.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여름방학특집 가족음악회 '박현빈과 함께하는 국악의 바다로'	8. 2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서울발레시어터 창작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8. 23.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블루노트 실용음악학원 정기연주회	8. 27.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신줄리어드 음악학원 정기연주회	8. 29.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수리음악공쿠르 입성자 음악회	8. 3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클래식음악동호회 피아노앙상블	8. 3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4회 대한민국 태을서예·문인화대전	8. 31.(심사) 10. 13.(시상)	군포문화원
2008 경기합창페스티벌	9. 2.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2회 창작단편뮤지컬축제 '비상'	9. 4~6.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박종만 사진전	9. 5~11.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	9. 6~7.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금난새와 경기필하모닉 캠퍼스 클래식 투어	9. 11.	한세대학교 대강당

행사명	날짜	장소
극단 피악 '변기'	9. 18~19.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8년 한마음소망전 조형예술 생활공예 작품전	9. 20~22.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제6회 군포예인예술제	9. 21.~10. 25.	문화예술회관, 중심상가 야외무대, 시민체육공원
산본아트홀 '어린이연극교실 발표회'	9. 23.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6회 수리합창제	9. 25.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4회 대한민국 태을서에 · 문인화대전 수상작 전시	9. 25.~10. 1.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시민의날 기념 '우리동네 회화 작가전'	9. 25.~10. 14.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다사랑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9. 27.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14회 군포사랑 어린이사생대회	9. 27.	양지공원
제6회 전국수리무용공쿠르	9. 27~28.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중앙도서관 작은영화제	9. 27~28.	중앙도서관 소극장
제4회 경기독서감상문대회	10. 1~31.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군포시립여성합창단 개천절 기념 특별연주회 '한국환상곡'	10. 2.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군포꽃예술연합회전	10. 2~5.	문화예술회관
성결대학교 영극영화학부 창립 5주년 기념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10. 4.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민문학 출판기념회	10. 4.	중앙도서관
제5회 시민가요제	10. 4.(예선) 10. 10.(본선)	여성회관 시민체육광장
2008년 문인협회 정기시화전 '가을에 만나는 시화그림'	10. 4~7.	중앙도서관 1층
시민백일장	10. 4.(예선) 10. 18.(본선)	능안공원
군포사진연구회전	10. 6~8.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우리동네회화작가전	10. 9~14.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태을서에대전 초대작가전	10. 9~14.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제1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	10. 10.	시민체육광장
교과서 속 전통국악과 만날 수 있는 '해밀의 색다른 여행'	10. 11.	군포문화센터 상극장
뮤지컬 '명성황후'	10. 11~12.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89회 가족극장 '사이좋은 형제', '꼬마물고기의 사랑'	10. 14~25.	군포문화센터 상극장
대한민국중심작가초대전	10. 15~28.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크리스찬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10. 16.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추억의 영화음악콘서트 '가을路'	10. 18.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7회 군포시민 백일장대회 개최 안내	10. 18.	능안공원
성민실버합창단 정기연주회	10. 23.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나윤선&울프베케니우스 듀오 콘서트	10. 24.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제4회 경기청소년미술대회	10. 25.	양지공원
창작가족뮤지컬 '하얀마음 백구'	10. 25~26.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3회 군포음향 정기공연 '가을밤의 음악축제'	10. 28.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영철 바레 뽀에마 창작발레 '물고기 그림자'	10. 29.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화인아트 '행복한 그림전2'	10. 29~11. 4.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제22회 청소년예술제	10. 3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코리아챔버싱어스 정기연주회	10. 3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08 문화예술인 합동 워크숍	10. 30.	청호인재개발원(화성시)

행사명	날짜	장소
예향팬플룻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 31.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토니카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 1.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8 전국수리학생 미술실기대회	11. 1.(대회) 11. 6.(사상식)	능안공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제7회 군포청소년연극축제	11. 2~8.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정다우리 '2008 국향의 멋, 사랑의 빛'	11. 4.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숙명피아노교습소 원생 정기연주회	11. 5.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경기수채화작가회전	11. 5~9.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이해경현대무용단 '세상의 꽃들'	11. 7.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첼리스트 송영훈의 가을콘서트	11. 8.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군포시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1. 11.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꽃예술작가회 전시회	11. 11~13.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제13회 군포여성미술인전	11. 14~17.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1. 15.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극단 놀이터 '김치요정과 병균마왕'	11. 18. 11. 2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새한샘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1. 19.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군포고등학교오케스트라 '해설이 있는 음악회'	11. 19.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한국서예협회 군포지부전	11. 20~23.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연극 '민자씨의 황금시대'	11. 22.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군포대학樂동아리 졸업작품전	11. 25~28.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군포시청 통기타동호회 뮤즈 A.T 제1회 정기연주회	11. 27.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소망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11. 27.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캐논클럽 사진전	11. 29~30.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장화신은 고양이	11. 29~30.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0회 산본사랑학우회 전시회	12. 2~6.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한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12. 5.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8 경기아버지합창제 '아빠 손잡고 떠나는 음악여행'	12. 6.	문화예술회관
군포시 학원연합회 자선음악회	12. 6.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서은희 수채화전	12. 7~10.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Extreme Beat Performance '거리-모리-마치-푸리'	12. 11.	군포문화센터 상상극장
군포서예협회 서예전	12. 11~14.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2. 12~13.	문화예술회관
손열음 초청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위대한 베토벤'	12. 16.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	12. 19~21.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익스트림 댄스코메디 '브레이크 아웃'	12. 23~25.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출처 : 「군포 축제/행사」, 군포문화관광(<http://culture.gunpo21.net>); 「공연/전시」, 군포문화예술회관(<http://www.gunpoart.net>).